

美 기독교인 “리더의 덕목은 고결-진정-절제-열정 순”

대부분 국가적 리더십 부족 느껴

최근 조사 결과, 미국 성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passion for God)이 아닌 고결함(integrity)을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리에 기반을 둔 바나그룹이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에서, 크리스천의 64%가 고결함을 가장 중요한 리더의 덕목으로 꼽았으며, 이 밖에 진정성(authenticity, 40%), 절제력(discipline, 38%), 하나님을 향한 열정(31%)을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반면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리더의 중요한 덕목으로 꼽은 비율은 83%로 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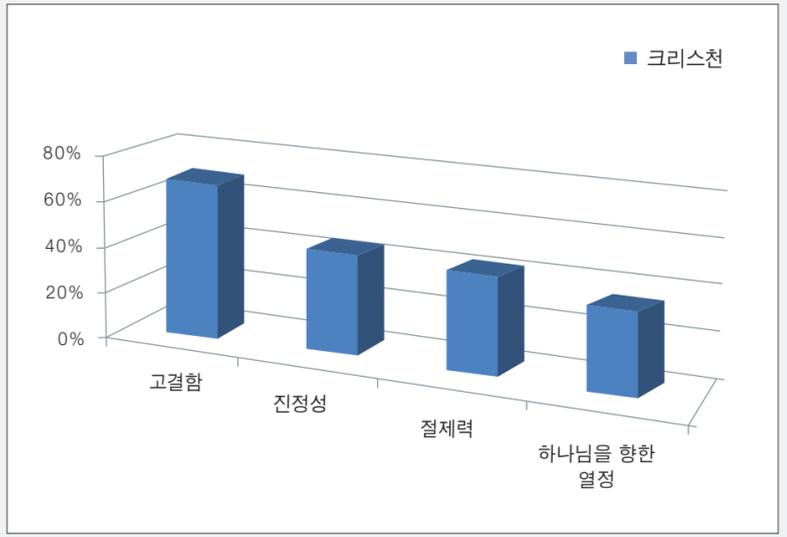
크리스천의 절반 이상(58%)이 자신을 리더로 칭했으나, 이들 중 15%만 고결함을 자신이 지닌 리더로서의 자질이라 답했다.

성도들이 자신의 리더십의 강점으로 꼽은 것은 능력(20%), 절제(16%), 협력(15%), 고결함(15%) 혹은 진정성(14%)이었다. 복음주의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자신이 지닌 최고의 리더십 자질로 꼽아, 전체 그룹과 차이를 보였다.

“어떤 리더십을 기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27%가 용기를, 17%가 절제를, 15%가 비전을, 13%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꼽았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신을 리더로 여겼지만, 이 가운데 절대 다수(82%)가 미국에 리더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바나그룹 데이비드 킨만 회장은 “미국의 리더십 위기에 관한 논평”이란 글에서 “크리스천들은 미국 내 리더십 위기가 리더의 부족 현상 때문이라고 인식한다”면서 “대부분 자신을 리더라고 느끼지만, 이들 중 다수는 자신의 능력이 리더십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 이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리더로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INTERVIEW

절망 너머에서 만난 ‘빛’, 예수 그리스도



신섭 장로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캐나다 한인교회들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신섭 장로. 그는 작년도 6개월간 북미주 한인교회 및 기독교인회, 중남미 과테말라 등에서 93번의 간증집회를 했다. 현지 기독교인들을 통해 인터뷰 기사 형식으로 간증을 한 것도 27번이다.

건강식품을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복성무역, (주) 더존비전, (주)지오산업 등의 회장을 맡아 바쁜 와중에도, 이렇듯 쉬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일본에서 자수성가한 아버지 덕에, 그는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해방 이후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부잣집 도련님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러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가정 형편이 기운 것이 그의 생애 첫 위기였다. 그가 가진 교사 자격증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빠듯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이모부가 운영하는 약품 도매상에서 자전거 약품 배달부를 해서 돈을 벌게 됐다.

그는 3만5천원짜리 자전거에 약품을 싣고 달리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며, 10년 안에 최고급 승용차를 타겠다는 꿈을 꿔다.

신섭 장로의 꿈은 이후 6년 만에 운수회사, 물류회사, 주유소, 골재·건설업체, 가스회사 등 30개의 회사를 거느린 종합 기업체의 회장이라는 모습으로 이뤄졌다. → 4면에 계속

전 미주장신대 총장 김인수 박사 <소헌세자와 동도서기론> >> 15면

북미주 전국의 감리교인들 모여 화합의 자리 마련

2013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2013년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지난 15~18일 ‘함께하면 풍성합니다’라는 주제 하에 LA 에어포트매리엇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북미주 전체에 흩어져 있는 감리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구상하는 화합과 연합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총회장 안명훈 목사(아폴라연합감리교회 담임)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꿈을 함께 꾸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 서스퀘어

나 연회 박정찬 감독은 축사를 통해 “이번 총회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서로’, ‘함께’, ‘같이’ 등의 의미를 떠오르게 한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은 결코 개인적이고 특정한 한 지체를 위한 배타적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함께할 때 풍성해야 할 것은 서로를 향한 이해와 신뢰, 존중이어야 한다. 또 서로를 위한 관심과 배려와 협력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공동 운명체로서의 의식을 확인하고 강화해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나눔과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 기간 중 진행된 첫 바이블스터디 순서에는 유병성 목사(예루살렘 성서연구소 대표)가 ‘성지와 성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전했다. 유 목사는 신·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비롯, 여리고성, 성서시대의 기브온, 그리고 거라사 지방 등에 대해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참석한 목회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어 ‘여성목회자’라는 주제로 발제한 안선숙 목사(영어명 Sunny Ahn, 한인여교역자 총무)는 1985년부터 시작된 연합감리교회 한인여교역자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8명의 여성 목회자가 배출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안 목사는 “(교단 내) 한인여교역자가 1985년 당시 6명에서 지금의 숫자에 이르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며 “현재 많은 한인여성 목회자들이 한인교회는 물론 다민족교회, 병원, 양로원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 28년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여성 지도자들과 감리사들이 많이 배출돼 왔다”고 밝혔다.

작년 한인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추대된 안명훈 목사는 임기 시작부터 한인연합감리교회 내의 여러 그룹의 보다 나은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ASE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할인해 드립니다.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6월 15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이민 110주년 기념 '로스앤젤레스복음화대회' 성료



조용기 목사 "꿈을 꾸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

홍재철 목사 "기도로 영감 받아 카이로스적 삶 살자"

길자연 목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로스앤젤레스복음화대회>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LA 주님의영광교회 등지에서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1903년 대한민국 이민 조상들이 하와이 사탕 옥수수밭에서 농장 근로자로 일하며 고된 육체노동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린지 11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열린 이 행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세계총회, LA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진행됐다. 후원에는 LA 총영사관, 남가주한인목사회, 한인커뮤니티단체장협의회, LA교역자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첫날 개회예배에만 2천여명에 가까운 한인 이민자들과 라티노들이 가족단위로 참석하는 등 대회를 가득 메웠다.

18일 오후 7시 30분 LA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린 개회식은 1부 감사와 축하와 영광, 2부 영적 대각성 감사와 영광의 밤에 배 순서로 진행된 가운데, 여의도순

복음교회 원로 조용기 목사가 강단에 올라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대회 주강사로는 조용기 목사 외에도 길자연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증경총회장), 홍재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오관석 목사(기독교총연합회 증경총회장)가 초청됐다.

개회식 축사를 맡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 홍재철 목사는 "가난하고 가슴 아팠던 110년 전 조국의 현실을 뒤로하고 먼나라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던 이민의 초창기 어른들이 오늘날 미국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세워주고 세계 속에 한국교회의 위상을 확립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이민교회를 섬겨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교계 및 이민 사회 지도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며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남가주교협 진유철 목사는 한 영인사를 통해 "지난 몇 십년간 조용기 목사를 통해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으며 복음의 역사가 확장됐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큰 은혜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잠언서 4장 23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조용기 목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마음이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몸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50년 만에 85만명 규모의 대형교회를 일궈낼 수 있었는지 물어온다. 나에게도 마음 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분명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바라봤으며, 마음 속으로 항상 세계에서의 대형집회를 꿈꿨다. 그 결과 수년 전에 브라질 상파울로 집회에 100만명이 모였으며, 지난해 인도에서 100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책장암에 걸린 한 성도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낫고 있다고 전하며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무섭다. 마음이 고침을 받으면 육체가 고침을 받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 이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BBC에서 왜 유럽교회가 죽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에 취재온 적이 있다.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유럽교회는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예수를 전하는데 비해, 우리 한국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이 가득차고 있다고 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목사는 "우리의 생각과 꿈, 믿음, 말이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세계 속에 계신다. 그러므로 심자가를 바라보라. 그럼 생각이 달라진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한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 늘 용서받은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치료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짐하길 바란다. 격자씨 한알의 믿음만 있으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조용기 목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말이다. 말은 대화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말로서 천지를 지어가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말과 믿음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당열 목사(한기총세계총회 대표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성회는 다양한 이벤트로 대체로 불거리가 풍성했다는 평가다. 이날 조용기 목사와 홍재철 목사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의 표창을 강석희 전 얼마인 시장으로부터 받았으며, 노숙자중창단인 '스키 로우(Ski Row)'가 특별찬양 3곡을 선사했고, 국제홀리산교단이 준비한 워싱턴 공연도 진행됐다. 또한 LA지역 라티노, 한인, 흑인 등 여러 인종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축사 및 환영인사를 전했다.

복음화대회 둘째날인 19일 오전 6시 열린 통곡기도회(일명 이슬비기도회)에서는 한기총 대표 홍재철 목사가 강사로 나섰다.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LIC #0H66712

1948년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하나 건강 보험의 사무실에 오시면 5분이면 간단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받지않습니다.] 또한 메디케어를 신청 하면서 신청인의 매달 소득과 자산에 따라 자격이 되는 정부 혜택 (메디 -칼, 메디케어 보험료 절약 프로그램, 처방약 비용 보조프로그램)도 같이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 2013년 9월 부터 시행 예정인 메디칼 메니지드 케어 (메디칼 HMO) 플랜이란?
- 2014년 부터 시행 되는 칼메디 컨넥트 (메디칼, 메디케어 통합 플랜) 플랜이란?
- 오바마 케어 플랜이란 ?

(상기의 세미나는 특정 상품을 광고 하거나 판매 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주제로, 하나 건강 보험의 데이빗 강이 세미나를 하여 드립니다. 장소와 시간은 아래와 같으니 많이 참가 하셔서 변화에 따른 이득과 불이익을 인지 하시고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예약 문의 사항은 TEL:213-500-4563 (전화를 받지 않으면 통화중 이오니 10분내로 전화 올리겠습니다.)

1. 5월 4일 2013년 (토) 오후 5시 주님의 기쁨교회(이상호목사).
1540 Linden st, Riversie, CA 92507 T.951) 686-4900

2. 5월 5일 2013년 (주일) 오후 1시 예진교회(김민재 목사)
955 W Imperial Highway, Brea, CA 92821 T.714) 788-3677

213-500-4563 Customer Service

LOS ANGELES
520 S. Virgil Ave. Suite 204, Los Angeles, CA 90020

DAVID KANG
LIC# 0F16211
T. 213-500-4563

‘로스앤젤레스복음화대회’ 나흘간 축제 무드

이날 열왕기하 2장 7-11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홍재철 목사는 “우리 집 안은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어딜 가든지 복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썩을 것을 위해 살며 땅으로 내려가고 있다. 한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살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앞에 기회의 문은 늘 열려있다.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자는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성공의 비결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다. 지나온 71년의 세월 동안 의미없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보람된 하루 하루를 살 때 최고의 생애가 된다”고 했다.

홍 목사는 또 “복받는 삶은 기도하는 것이다. 영감이 없는 목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기도생활에서 영감이 나온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오후 7시 30분 만나교회에서 열린 이민 110주년 기념 경축예

배에서는 길자연 목사(한기총 증경회장)가 메시지를 전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을 제목으로 설교한 길 목사는 “이스라엘 없는 다윗을 생각할 수 없듯이 요나단 없는 다윗을 생각할 수 없다.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로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 그런 자가 모든 것을 다윗에게 물려줬다. 모든 것을 갖추고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역사의 뒤로 숨을 줄 아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며 “요나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먼저는 선수(先授)적인 사랑이다. 이는 먼저 사랑한 것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다. 두번째는 영원한 사랑이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지속적인 사랑을 볼 수 있다. 그는 자기생각과 욕심을 다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길 목사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개척을 시작해 어려운 사람들과 힘들게 목회를 해왔다. 그래서 강남 지역으로 가고 싶어 새벽기도 시간에 서너 시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에) 파송했다’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 음성을 듣고 교인들을 보니 (교인들이) 너무 달라보였다”며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

님의 뜻을 모르는데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 내가 40년 동안 목회해온 왕성교회 교인들은 내가 어려울수록 더 잘해준다. 예수를 믿고 축복받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지 않았던가. 여러분이 LA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용서와 이해를 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운영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 후에는 성만찬의 시간이 있었으며, 고(故) 박관준 장로의 장남과 고 서재필 박사의 손녀가 독립유공자 표창장을 받았다. 또한 홍재철 목사와 강석희 시장(전 알바인 시장)이 미주대한신학교로부터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6명의 청소년들이 주회 측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행사 말미에는 연합위임선교단, 사우스베이여성합창단, Y's Singers, 국제홀리워십선교회, 조이풀선교중앙단이 각각 합창을 했으며, 만세삼창을 함으로 이민 110주년을 기리기도 했다.

남미 출신 13쌍 ‘사랑의결혼식’으로 백년가약 맺어

한국 교계와 한기총 관계자들이 지난 18일부터 LA에 방문 중인 가운데 20일(토) 오전 11시에는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사랑의 결혼식’이 열려 이목을 끌었다.

주례사를 전한 홍재철 목사는 “이번 사랑의결혼식에서 주례를 하기 위해 13시간 동안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 이 말은 자식을 번식시켜서 후손을 많이 만들라는 의미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간에 사랑함으로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결혼식에는 과테말라, 멕시코, 온두라스 출신의 신랑·신부 13쌍이 참석했다. 노숙자중앙당 스키 로우(Ski Row)의 특송에 이어 많은 축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성가 합창제’로 대회 마무리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대성가 합창제’는 21일(일) 오후 7시 원서연합감리교회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백지영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선을 다해 준비한 공연을 위해 함께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최정상 수준의 솔로리스트들의 선율과 합창단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모두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한데 어울려 환상적이면서도 뜨겁고 은혜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Messiah) 44번 ‘할렐루야’를 함께 부르면서 공연의 막이 내릴 때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테너 전승철과 소프라노 황혜경을 비롯, 극동성가단, 속명칸테모, 바이올리니스트 이선정, 코리안아메리칸 영아티스트합창단, 글로리아 여성합창단, 미주여성교향, 남가주장로성가단 등 10여개 팀이 참가해 아름다운 음율을 선사했으며, 마지막 순서에서는 이날 무대에 선 음악인들이 총출동해 ‘할렐루야’를 함께 부르면서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한편, 이날 대성가 합창제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오관석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증경총회장)가 메시지를 전했다. 축도는 박병구 목사(미주대신 교목실장)가 맡아 했다. 토마스맹기자

국제개혁신대·신학대학원 ABHE 축하 기금모금 만찬 개최



최근 ABHE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국제개혁신대·신학대학원이 22일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기금모금 만찬 행사를 가졌다.

국제개혁신대·신학대학원(IRUS)이 ABHE 정회원 축하 기금모금 만찬이 22일(월) 오후 6시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국제개혁신대는 지난 2월 중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ABHE 제66차 연차총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지난 2007년에는 ABHE 준회원을 획득했고, 이후 교수, 행정, 도서, 학생서비스,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ABHE의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사장 서종천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부이사장 이상재 장로의 기도예 이어 총장 박헌성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이어 클레이 햄 박사(ABHE 위원회 의장)를 비롯 배우한 회장(LA한인회), 오영중 박사(전 이사장), 최인근 박사(워싱턴신학대학교 학장), 국남주 목사(뉴저지새생명교회)가 잇달아 축사했다.

또한 조의호 목사(뉴욕성화교회) 축사 낭송에 이어, 김선중 목사(전 학

감)와 이선일 박사(필라델피아 이사장)와 이운영 박사(전 이사장)가 격려사를 전했고, 허활민 박사가 축도함으로 순서를 모두 마쳤다.

최인근 박사는 축사에서 “이날의 영광을 하나님과 LA 지역사회에 돌려드리기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우뚝 서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선중 목사는 격려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탐과 눈물로 헌신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사를 베푸신 줄

독지가 3인 평생 이사

6만불 현금 약정

민는다”고 말했다.

한편, 3명의 독지가가 평생 이사로 6만불의 현금을 약속했으며, 열린문교회가 1만5천불, 베들레헴교회 2천불, 한미장로교회 1천불, 박정희 교수(IRUS) 1천불, 김남을 목사가 1천불의 17개 교회가 작정 현금을 했다.

ABHE는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USDE)와 고등교육 인가기관인 CHEA 산하 기관으로서 공인된 기독교대학 인가협이다. 현재 200여개의 정회원 기독교대학 및 신학대학원이 있다.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으로는 교단 소속 또는 주정부 등록만 있는 학교 졸업생들과는 달리 ABHE 정회원 대학의 학생들은 미국 내 우수한 기독교대학, 대학원 및 기타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경우 모든 학점과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WSF 스트레칭 운동 세미나 개최

월드스페셜페더레이션(World Special Federation, 이하 WSF)이 주최하는 스트레칭 운동 세미나가 27일 오후 1시 30분~4시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열렸다.

WSF 존 김 대표는 “교통사고, 장애자, 중풍마비환자, 암으로 불편한 사람, 파킨슨, 우울증, 손목 어깨통증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WSF는 이를 위해 중고등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대동원 봉사상을 비롯, 각종 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수수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WSF는 마라톤, 농구, 태권도 등 다양한 장애인 재활운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스포츠 프로그램 및 그림 지도를 통해 정서발달과 함께 청소년 범죄 예방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흡리스트들을 돌보는 구제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문의: (213) 258-8808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전철하게 웃음으로
상당히 드립니다.”
부담없는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24hr 한국어서비스
KEVIN YOO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약도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7전 8기의 은혜> 저자 신섭 장로 인터뷰

>>기사 1면으로부터 이어짐

그러나 주위의 시샘과 정치적 문제로 흑자도산해 뼈아픈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그는 허무와 허탈감에 빠져 자신의 생명까지 내버리는 시도를 2번이나 했다.

“내 생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만남, 예수”

신 장로의 아내에게서 그 사정을 들은 기도원장이, 신 장로에게 기도원에 갈 것을 강권했다. 그 곳에서 그는 마흔두 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그의 책 '7전8기의 은혜'에서 “주님과의 만남은 내 생애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만남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3년6개월을 생활하며, 인생의 막장까지 내몰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사회로 나와 밀바닥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브리태니커의 영어백과사전을 파는 외판원이었다. 그는 책과 함께 '복음(Good News)'도 팔기로 하고, 과거 10년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이에게 찾아가 복음과 함께 책을 소개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리기 위해서, 그는 일부러 무릎까지 꿇고 책을 소개했다. 그렇게 신 장로는 6개월이라는 최단 기간에 전 세계 서적 판매상, 집 마이너상, 벤튼상 등을 수상했다.

“살려주시면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기업의 CEO로 스카우트되어 쓰러져가는 회사들을 살렸다. 그러던 중 원인 모를 40도의 고열로, 1달 동안 병원생활을 했지만 치료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합병증으로 녹막에서 주사기로 물을 빼야 하는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

그러던 중 신 장로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에 소홀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라고 서원기도했다. 그러자 고쳐주시겠노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왔고, 문득 “얼음주머니로 급냉동하면 열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

각이 스쳤다.

간호사가 그렇게 하면 심장마비로 급사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준 적이 있기에, 신 장로는 몰래 얼음주머니를 하나 둘씩 모아 병원 환자복 속에 둘러쌌다.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정밀검사를 하니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도하는 택시기사’

기적적인 치유하심으로 건강을 회복한 신 장로는, 택시기사를 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전도하기에 영업용 택시기사가 가장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주일과 새벽예배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없는 탓에, 다른 운전자들이 몰고 나간 후 남은 차를 운전해야 하니, 에어컨이나 히터가 고장나거나 브레이크가 밀리는 차로 영업하기 일수였다. 그는 그런 차로 고장 없이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했다.

그 후 그는 다시 모 유통업체, 주식회사 한일그린제약, 고려인삼제품에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난 신섭 장로. 그는 지금, 세계 각지를 누비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다.

스카우트 되어갔다. 그곳에서는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흡소핑 판매를 했다. 신 장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흡소핑 쪽에서 상품대금을 선입금 받으며 인퍼머셜 녹화 테이프 제작비까지 50~100% 부담해주었다”고 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박 행진이 나와,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

고 오는 일까지 벌어졌다. 다음해에는 선입금과 선투자(선금투자 동업자)를 받아 홍삼생녹용사슴원골드, 동의한방다이어트, 파워슬림다이어트, 홍삼실크다이어트, 라파리버, 키토산, 상쾌한 아침, 백두대간 가시오가피 등 계속 많은 히트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던 중 2009년에는 간에 밤톨크기의 종양이 생긴 것을 발견해 다음날 수술이 잡혔음에도, 약속돼 있던 집회에 중환자의 몸으로 서기도 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고통 가운데 집회를 인도하던 중, 그는 아픈 부위에서 뜨거움을 느끼고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했다. 실제 다음날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보니 종양이 사라져 있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었다.

그의 죽음을 불사한 ‘용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왔을 것이다. 신 장로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삶 가운데 쉽 없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있다.

그렉 로리 “릭 워렌의 아들, 천국서 볼 수 있을 것”



그렉 로리 목사가 21일 새들백교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렉 로리(Greg Laurie·하비스트교회) 목사가 릭 워렌 목사를 대신해 새들백교회 강단에 섰다.

21일 새들백교회의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맡은 로리 목사는 “나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같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또 다른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설교에 앞서, 로리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슬픔의 한가운데 있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비스트 크루세이드(The Harvest Crusade) 창립자이기도 한 그는, 약 5년 전 예상치 못하게 아들을 잃고 나

서 ‘새로운 사역’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매튜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와 내가 40년간 목회했던 하비스트교회는 새들백교회의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성도들이지만, 또한 한 가족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붙들어주는 한 가족”이라고 교인들을 위로했다.

로리 목사가 매튜 워렌의 사망 소식을 듣고 릭 워렌 목사에게 전했을 때, 워렌 목사는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로리는 “왜냐하면 나도 역시 아들

을 잃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생각을 나눴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다. 나는 워렌 목사와 카이 사모가 그들의 아들인 매튜를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튜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치열함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고 있다. 워렌 목사가 스스로 말했다시피, 천국은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닌,

대해서도 지적했다.

로리 목사는 “현재 미국은 많은 혼돈을 겪고 있다. 최근 보스턴에서 테러가 발생했다. 2명의 청년들이 보스턴을 멈춰놓았다. 그리고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핵무기를 개발 중인 이란은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북한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우리의 희망을 정치인들에게 둘 것인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

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한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자”고 권면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고 있는 워렌 목사를 대신해 앞으로도 프랜시스 스텐, 마크 드리스콜, 페트 윌슨, 데이빗 프랫등 유명 목사들이 이 교회의 강단에 설 예정이다.

새들백교회서 교인들 위로... 보스턴 테러 등 미국의 혼돈 상황도 언급

나님께 둘 것인가? 우리는 과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전 세계에는 복

이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설교한다.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로 유명한 찬 목사의 설교는 다음 주로 예정돼 있다.

강해진 기자

인디안 알로에 베라 신제품 알로에-메타 블루칸 로션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당뇨병,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장로회국제연합신학대학 · 대학원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2013년도 가을학기 남 · 여 학생모집 (신입 · 편입 · 온라인 · 장학생)

본 신학대학은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양성하여 세상에 보내고자 합니다. 본 신학대학은 California 주 정부의 승인을 받고 Tax Regist No. 와 California Education School Code No. 도 받아 정식 등록된 학교로서 본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삼위일체 장로교회 국제 연합총회(Trinity International Presbyterian Alliance) 교단에서 목사안수 또는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습니다.

학사과정	교육학사 교회음악 학사 신학 학사	Bachelor of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Church Music Bachelor of Theology
석사과정	기독교 교육학 석사 교회 음악 석사 신학석사 목회학 석사 선교학 석사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Theology Master of Divinity Master of Missology
박사과정	목회학 박사 선교학 박사 기독교 교육학 박사 신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Doctor of Missology Doctor of Christian Education Doctor of Theology Honorary Doctor of Divinity

개 강 : 2013년 9월 10일(화)
 입학안내 : 입학원서 본교소정 양식 1통
 접수 : 수시로 입학
 온라인 지원 : 수시로 접수
 전화 : 714)767-1806 714)393-7952(cp)
 주소 : 1749 West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총 장 : 정영수 박사 (Dr. Paul Jung; Ph.D., D., D. Min.)
 이사장 : Paul I. Junn 목사 (CEO)

장로회국제연합신학대학 · 대학원
 ■ 1749 West Orange Ave., Anaheim, CA 92804 ■ 714) 530-2211

수시입학의 선구자 종합대학

말씀에 이끌리는 믿음을

마태복음 21:28~3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마 21:28-32〉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한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말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비유를 겸한 본문의 내용은 대제사장들, 장로들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다가 무리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말만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임을 밝히시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말아들의 거짓된 불신앙

말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가겠소이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니다. 여기서 포도원이란, 구령(敎靈)성과를 위한 영적 사역장, 즉 교회를 일컫는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다른 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을 하라는 지시였는데, 아버지께 가겠다고 즉답(卽答)은 해놓고 가지 않았으니 자신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와 모습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실질적 생애(生 態)로 마태복음 23장에서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에게 돌보이려고 차는 경문을 넓히고 옷술을 크게하며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호칭받기를 좋아한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지도한다면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짓 신자, 죽은 심령임을 지적, 경계하라 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했고, 15절에서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한다” 했으며, 16절~19절에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일 없거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나 그 위에 있는 예물이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하니 소경들이여 어느것이 크뇨 그 예물이야 예물을 기록하게하는 제단이나”고 책망하셨고 23~24절에서는 “너희가 박아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울비의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23장 27~28절엔 “회질한 무덤같이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되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하셨으며, 29~33절에서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심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지적들이요, 애타는 책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짓 신앙으로 가장하는 것과 외식하는 것, 예수님 이름 위에 군림하거나 행세하려는 육체적인 오만무례한 종교지도자들을 가장 싫어하심을 명심하고 영적인 성도로 거듭나서 천국의 후사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과 부정과 불신이 너무나 만연해 가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일곱 번이나 “화(禍)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하시며 지적하신 생명없는 겉치레뿐인 죽은 신앙을 책망하실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로 비유된 세리와 창기들의 회개하고 구원언어 기뻐 뛰는 믿음생활, 영적 소망의 신령한 기쁨에 젖어사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지도자들은 직분적 권위와 교만한 자세를 굽힐 줄 몰라 결국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책망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일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는 말씀을 붙들고 서둘러 겸손하게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시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없더라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시107:10~12)

둘째 아들의 회심(回心)과 산 신앙

여기 둘째 아들이라 하심은 그 당시 멸시와 천대로 사람대접 받지도 못하고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하던 하급시민(下級市民)들로 본문(本文)에 명기(明記)된 세리와 창기

들같은 수준의 천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싫소이다 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은 회심을 통한 구원언어 기쁨과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생애사역의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신뢰와 기대 가운데 더욱 돈독해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처음엔 자기 형편과 입장을 우선시 하느라고 싫소이다 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즉시 거부하고 말았으나, 아버지의 아들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회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이끌려 포도원으로 갔고 순종의 보상으로 자신이 살고 남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재세시(在世時)에도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거리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수가성의 창녀등 죄값에 시달리던 수많은 밑바닥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오순절 이후 성령충만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위력이 전 세계로 뻗어 가던 중 우리 한국에도 이 복음을 허락하셔서 120여년의 한국 교회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먼저 세웠다는 분들의 언행(言行)이 본(本)을 세우지 못한 폐단으로 새신자 전도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이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불행한 심령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는 소망적 신앙

마태복음 5:13~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신 말씀대로 목

사는 참 목사다운 언행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관할, 교사, 찬양대원들도 제각기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이며 언어예절과 겸손히 섬김의 자세를 갖추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애사역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성도라면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게 되어있고 인간 자기 입장보다 주님의 입장을 따라 겸손히 순종할 때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희생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밝혀야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관용하고 봉사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것이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전달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성도의 본분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18절에 “내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도 평안히 가라, 더듬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은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쩌다가 말아들 처럼 말씀에 붙잡히지도 이끌리지도 못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외식하는 거짓 신앙으로 심령이 죽어있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고 둘째 아들을 본받아 서둘러 회심하여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거듭나며 말씀과 성령께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으로 전도에 힘쓰는 포도원의 생애 사역 역군이 됩시다.

나부터 서둘러 구원언어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섭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수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토요일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미국 기독교일보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명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사,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IFP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K-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영성의 힘은 생각·꿈·믿음·말을 다스리는 것”

조용기 목사, 4차원 영성글로벌포럼 조찬세미나서 강연



조용기 목사가 4차원 영성 글로벌포럼미주본부 주최 조찬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용기 목사가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성회 <로스앤젤레스 복음화대회> 주강사로 초청돼 지난 15일 LA에 도착한 가운데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조용기 목사는 17일 오전 6시 30분께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4차원 영성글로벌포럼미주본부가 마련한 조찬 세미나에서 '4차원의 영성'에 대해 강연했다.

조용기 목사는 자신의 50년 목회철학이 담긴 4차원의 영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4차원 영성의 힘은 생각과 꿈, 믿음, 그리고 말을 다스리는 것에 있다”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전능

하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 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4차원 영성의 믿음으로 취약암 환자가 회복되는 기적을 간증한 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각을 바꿈과 동시에 환경은 자동으로 바뀌어진다. 4차원 영성을 통해 세계 최대 교회가 세워졌다”며 “우리가 팔, 다리를 갖고 태어나는 것과 같이 믿음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부디 마음을 지키길 바란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역사는 그 안에서 나오게 된다”고 역설했다. 4차원의 영성은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해 지난 50년간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한국교회 성장의 상징으로 소개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장 동력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미주 전역에 퍼져있는 조용기 목사의 제자들인 순복음교회 교역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4차원 영성포럼 미주본부 수석부회장 최명상 목사는 “올 하반기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고지도자 교실을 베데스다대학에서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멩기자

청빙광고

● 교회 소개:
아름다운 도시 플로리다 올랜도에 위치한 올랜도제일장로교회 (http://orlandofirst.org)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꿈을 품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지역 사회와 2세 목회에 헌신하실 목사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M.Div 이상, 목사안수후 최소 3년 경과하신분(담임목사 경험 있으신분 우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하자가 없으신 분,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가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하드카피 혹은 소프트카피):
▪ 자필이력서 (추천인 5인 성명, 관계 및 연락처 포함)
▪ 최종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
▪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포함)
▪ 목회 계획서 (목회 동기, 목회 철학, 목회 비전)
▪ 최근 설교 두편 녹화 CD 또는 파일

● 제출처 및 방법:
▪ 우편접수처:
First Korean Presby Church of Orlando (청빙위원회)
140 Lake Rose Dr., Orlando, FL 32835
▪ 이메일접수처 및 전화문의처:
FirstKoreanPresby@gmail.com
716-912-0747(주인근장로), 407-592-1614(박현환집사)
▪ 제출 시한: 2013년 4월 26일 도착분
*우편제출 서류는 청빙절차 종료후 원하시는 경우 돌려드립니다.

미주베델교회, 멕시코 단기선교 다녀와



미주베델교회 정요한 목사(사진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를 비롯 교역자들이 지난달 말 멕시코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미주베델교회가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샌

하신토 지역에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미주베델교회(정요한 목사)가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이종식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샌하신토 지역에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이번 선교에는 지난 3월 17일 목사 임직을 받은 배기문·이재현 목사를 비롯한 5명이 참석했다. 선교팀은 지난 목사 임직식날에 모인 헌금을 이종식 선교사에게 선교비로 전달하는 한편, 멕시코 선교사관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40여명의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다.

배기문 목사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선교하는 선교사와 수고하는 사람들만 보고만 와도 은혜가 됐다”면서 “이제는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겠다”고 했다. 이재현 목사는 “선교지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여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들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탑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COLUMN

가위 200개



남 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였던 이태영 여사가 변호사가 되기 전, 한때 이불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는 원래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그런데 미국 유학까지 갔다온 남편 정일형 박사가 함일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만 일본 경찰에 잡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이태영 여사는 어쩔 수 없이 교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옥바라지와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서 누비이불 장사를 시작해야만 했다.

밤새 가위질을 해서 이불보를 만들고, 실 틈도 없이 그 다음날에는 이불을 이고 집집마다 다니며 팔아야 했다. 전차삿을 아끼려고 이불 보파리를 이고 수습리를 걷는 날이 허다했다고 한다. 이런 남편의 옥살이는 광복이 될 즈음에 끝이 났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 아내의 손을 처음 본 순간 남편은 그만 눈물을 왈칵 쏟을뻔 했다고 한다. 아내의 엄지손가락이 90도 넘게 뒤로 제껴지고 검지와 중지도 크게 휘어져 있었던 것이다.

당시 쇠붙이란 쇠붙이는 일제가 전 쟁물자로 다 빼앗아간 탓에, 제대로 된 가위 하나 없었던 열악한 상황에서 무디기만 했던 가위질을 어찌나 많이 했던지 손가락이 휘어져 기형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동안 아내의 고생이 어땠는지 그 휘어진 손가락으로 짐작하고도 남았던 남편은 아내를 위해 이제는 자

신이 그 무거운 짐을 바꿔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정일형 박사는 아내로 하여금 1946년 33의 나이에 법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후원하기를 시작한다.

훗날 남편 정일형 박사는 외국을 나가거나 멀리 여행을 다녀올 때면 아내를 위한 선물을 꼭 하나 사 왔는데, 그것이 바로 가위였다.

잘 드는 가위 하나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아내의 옛 소망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사 모은 가위가 200개가 넘었다고 한다.

이태영 여사에게 있어서 가위는 자신의 삶에 다가온 남편의 사랑이었다. 이들 부부에게 있어 가위는 단순한 선물의 의미를 넘어서서 남편과 아내의 인생을 묶어주는 매개체였던 것이다.

200개의 가위는 다른 이에게는 전혀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물건일

망정, 그 두 부부에게는 과거의 아픈 기억과 고난을 씻어주는 유일한 위로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 가위는 두 사람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붙들어 주는 소망의 물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바로 때때로 가져다준 200개 가위 정도가 아니, 수천, 수만개를 넘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정의 사랑을 쏟아 부은 사랑의 이야기이다.

바로 2천년 전 골고다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이다. 이 사랑 이야기가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같이 매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상처와 아픔의 현실 위에 새로운 회복과 소망이 되도록 일방적으로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이 사랑을 감히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 조건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절망과 탄식, 상처와 아픔의 수렁에서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이것만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을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앞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다.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기고] 로잔언약의 신학적 근거(2)

WCC, '전 세계'·'새로운 질서' 등 거창한 단어 내세우는 이유



이동주 박사

지난달 초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는 선교신학연구소 주최 '로잔과 에큐메니즘' 학술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이동주 박사(선교신학연구소장)의 '로잔 언약의 신학적 근거'를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제5조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로잔언약이 선포되기 한 해 전인 1973년 방콕 선교대회에서, 남미의 해방신학과 병행하여 J. 몰트만(J. Moltmann)이 주장하였던 구원론은 성경적 구원론과 관계없는, 현재적이고 집단적인 정치·사회적 해방을 구원으로 이해하였다.

그 내용은 구원이 ①착취를 항거한 경제적 정의를 위한 투쟁에 있고 ②억압을 항거한 인권을 위한 투쟁에 있으며 ③인간 사회의 소외를 항거한 단결을 위한 투쟁에 있고 ④절

망을 항거한 희망에 있다고 고백한 것이다.

이러한 현재적이고 총체적인(holistic) 구원 개념은 1980년 제3차 멜버른(Melbourne) 세계 선교와 복음화 대회(CWME)에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대회 제목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멜버른 대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왕국(Reich)'으로 교체됐고, 이 왕국은 죽은 후 가는 천국이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미래적 천국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인 억압에서의 해방과 집단적 평가가 실현된 현재적인 이 땅의 왕국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로잔언약을 초안한 존 스토틀(J. Stott)는 성경적인 구원을 신체적 건강이나 사회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개인적인 해방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자유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악으

로부터의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이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업적과 부분적 정치적 승리가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는 아직도 멸절되지 않은 죄와 죽음과 악마의 세력이 군림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선교적 봉사가 사회적 봉사보다 우선적이라는 것을 명시했다

로잔언약 5조는 에큐메니칼 학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억압', '해방', '참여' 등의 용어를 빌어 복음주의자들의 사회 참여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구원의 총체적(totality)인 의미, 즉 개인적·사회적으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두 가지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에큐메니칼적 구원론과의 차이점을 명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인간 사이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적 행동이 곧 전도는 아

니고,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니라"고 명시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잔언약은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기독교인의 두 가지 의무라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긴급하고 최우선적인 일은 전도라고 천명하였다.

▶제6조 교회와 전도

WCC가 제시한 새로운 선교관에 응답하고 있는 조항이다. WCC는 다음과 같이 복음주의와는 상이하게 설명한다: 전통적 교회의 입력구조(come-structure)는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선교 구조, 정적 사고방식, 세상으로부터의 고립, 현실 밖에 존재함으로 복음선교에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였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방해하는 이교적 구조라고 한다. 그리고 개종에만 몰두하는 전도는 선교와 정반대가 된다고 자신을 구원의 중개소로 취급하는 것이라 비판하고, WCC에서 세상이 선교에 방해가 되었다는 전통적 구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다.

WCC의 새 선교인 출력구조(go-structure)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역동적인 구조이며 모든 확장 개념을 버리는 뜻이라 설명한다. 교회의 새로운 선교형태란 세상 사람의 요구에 봉사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방문해야 할 일, 젊은이들과 노인들을 돕는 일, 성례전적 생활을 조성하여 소집단 속의 인간들이 자신을 개발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일, 고독을 극복 할 일, 직업적 그룹들의 성장, 노동자 회중과 학생들의 모임, 사회봉사운동, 정치적 활동을 위한 유연성과 다양성 요청, 급변하는 사회에 올바르게 대처, 새로운 상황에 자신을 개방하는 일이라고 한다.

WCC의 '세계를 위한 교회'를 보면, 과거의 선교도식은 하나님-교회-세상이었으나 이 도식은 성서의 증언을 왜곡시킬 경향이 있다며 '하나님-세상-교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몇 개의 성구들, 즉 하나님은 세상과 화해하셨고(고후 5:19), 하나님의 관심은 전 우주, 모든 피조물(요 3:16)이며, 하나님의 제1차적 관계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였다.

WCC가 교회를 세상에 대한 '나그네'라 하고 교회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하는 데 반해, 로잔언약은 교회가 우주의 중심에 서 있다고 설명하며, 교회는 '기관'이라기보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Gemeinde)'라는 의미라면서 '교회' 개념이 오해되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다. 독일어는 '교회'의 두 가지 의미를 잘 설명한다. 교회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소명에 근거한 것이지만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며, 로잔언약은 전도가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며 최우선적인 일이므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것을 천명한다. 로잔언약 5조가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바에 이어, 6조는 교회는 사회적 책임에 앞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전도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함을 고백하고 있다.

▶제7조 전도를 위한 협력

로잔언약은 '일원론적 역사관'으로 WCC에서는 있을 수 없는 테마인 '전도를 위한 협력'에 관해 선언한다. WCC의 관심이 교회 대신 '세계', 그리스도인 대신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은 이미 잘 파악돼 있다. WCC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이고,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와 하나님이요는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불신자를 포함한 전세계라고 한다.

이미 1967년 WCC의 '세계를 위한 교회' 보고서에 일원론적 역사관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전통적 신학이 이종적 역사관을 지녔고, 교회 역사와 세속 역사, 그리고 구속사와

일반 역사를 구별해 왔다고 비판한다. 새로운 신학적 스타일인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교회는 독자적인 역사를 가질 수 없고, 역사는 특별한 역사 아니라 '온 인류의 전체적인 역사'라고 한다. 이처럼 WCC에는 오직 하나의 역사밖에 없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샬롬(Shalom)의 역사이며, 이 샬롬의 나라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해한다. 호켄다이크는 이 샬롬은 인간의 내적 본질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이자 인간관계의 사건이고, 샬롬은 상황 속에서 발견되고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WCC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천국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이유로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현재적이고 낙관적인 역사관에 심취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WCC는 회개를 통한 개인구원과 불신자의 멸망, 미래적 천국관을 상실하고, 대신 역사 내적인 천국을 의미하는 총체적 개념의 '전(whole) 세계', '새로운 질서', '하나의 역사'라는 단어들로 대체했다.

로잔언약도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심에 관해서 선포하고, 우리의 불일치가 화해의 복음을 손상시킴을 우려한다. 또 조직적인 일치의 다양성에 관해 언급하며,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닌 조직과 동일한 성서적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역, 전도를 위해 일치단결해야 할 불가피성을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일치의 추구는 진리와 예배, 거룩과 선교에 있음을 명시한다. 바로 이 진리와 예배와 거룩, 영혼구원을 의미하는 선교의 특성 등은 WCC의 일치운동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 네 가지와 무관한 일치운동은 아무리 포괄적이고 성공적이라도 진정한 기독교, 기독교 선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제8조 교회의 선교 협동

WCC는 20세기 후반부터 가시적인 연합이나 협력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협력은 결코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WCC는 이미 1960년대부터 세속적인 샬롬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68년부터 197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WCC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M. M. 토마스(Thomas)는 1975년 제5차 나이로비 WCC 총회 때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하고 연합한다'로 강연하면서, 한편으로 인류연합을 위한 '투쟁의 영성(Spiritualität des Kampfes)'이라는 창의적인 개념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회적이건 도덕적이건 문화적이건, 사람을 종속시키는 모든 연합을 파괴하고 더 성숙한 연합을 위하여 남(男)을 해방하며, 이 연합이 다시금 종속되면 또다시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잔언약의 협동에 관한 조항은, 오직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선교관을 위해 피력한 것이다. 로잔운동은 세계복음화가 모든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 전체 책임임을 선언하고, 성서 번역, 신학 교육, 매스미디어, 기독교 문서사업 등의 선교 사업을 위해 교회들간 협동을 주장한 것이다.

선교의 새 시대에 일어나는 선교교회와 피선교교회의 지역변동은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의 세계선교로 인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기독교 세계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를 위한 협력에 역행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분열상과 그 좌익에 대한 무감각함에 죄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는 소원과 아울러 자기실현의 욕구가 하나로 겹쳐진 한국교회 사역자들의 가장 큰 좌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가면서도 죄의식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주님의 기쁨교회
JOY RIVERSIDE CHURCH

가정 세미나
강사 : 양은순 박사

리버사이드 주님의 기쁨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비전을 꿈꾸십시오 !!!

날짜 : 4월 26일 (금요일) - 4월 28일 (주일)

- 4/26 (금) 8:00 PM: 은혜로 회복된 가정 (창세기 2:18-25)
- 4/27 (토) 7:30 PM: 그리스도를 위해 자녀를 기르자 (출애굽기 2:1-10)
- 4/28(주일) 2:00 PM: 그리스도인의 가정 (시편 127:1, 2)

양은순 박사 (Ph.D. & LMFT)

- 현재 코로나에 위치한 HIS University 총장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승인 결혼과 가정 전문 심리치료사 (Licensed Marriage & Family Therapist)
- AAMFT, CAMFT 승인 감독 (Approved Supervisor)
- 저서와 번역서: "사랑 행복의 초대" 외 10권의 저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녀를 기르자" 외 80여권의 번역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부흥회 가 가정 세미나 기간에 함께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주님의 기쁨교회
1540 W. Linden St. Riverside, CA 92507 / 문의 951-686-4900, 951-973-9573

오바마 케어 플랜 세미나
강사 : 데이빗 강(David Kang) / 5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

2013년 9월부터 시행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셔서 플랜 변화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잘 인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서 돌이켜 왜곡된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과 함께 세계선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협력은 확실하게 거부한 것이다(고후 11:4, 갈 1:6-10).

▶제9주 복음전도의 긴박성

로잔신학은 WCC의 반선교정책과 반개종주의에 관해 선언한다. WCC는 개종에 몰두하는 것이 반선교적이므로, 이제 교회가 '출력 구조(go-structure)'로서 '자신을 주는 교회(self-giving church)'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을 주는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의 모습 (Statur)과 신분 (Status)을 사멸시키고(absterben lassen) 세상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라며, 그 성경적 근거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의 "종의 형태를 입은 메시아의 삶"을 제시한다. 재물에 부유한 교회는 세상과 동류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전 소유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교회가 전국복음을 증거하며 회개와 개종을 요청하는 것은 세상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교회가 '존재'이기를 포기하고 하나의 '기능'에 그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WCC는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큰 소명으로 아는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다 사용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세상에 선포한 적은 없다. WCC의 선교는 실제로 위에서 간파되듯 세계 복음화도, 세계 선교도 아니다.

WCC는 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복음전도의 긴박성' 같은 테마 역시 WCC와 거리가 멀다. WCC 선교신학 즉 'Missio Dei 신학'은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복음적인 신앙을 떠난, 정치·사회적인 살롱 운동이며 해방 운동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에서 로잔언약은 인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7억의 인구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심각성을 고백하며, 그들을 향한 시했던 점을 스스로 견책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하에 WCC에서 반선교정책으로 내어놓은 모라토리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토착교회의 자립성을 기르기 위해 비복음화지역으로 그 자원을 회전하여 선교사들이 6대주 전역에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하는 27억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희생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10주 전도와 문화

로잔언약은 이 조항에서 WCC의 세속화 신학에 답변한다. WCC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야 할 이유를 성경에 두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세상은 전적으로 세속적이며 세속화는 현대사회의 한 양상이므로, 교회는 세속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신학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WCC는 세속화를 '복음의 열매'로 이해한다. WCC는 영구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은 변하고, 불변하는 상태란 상상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적·신학적 전통에서 소중하게 간직돼 온 많은 상징과 개념들이 그 타당성을 잃게 될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잔언약 제10조는 세계복음화 전략에 관한 조항이다. 복음을 타문화권에 가져가면 그곳의 과거 전통문화와, 현재 정치·경제·사회 상황과 만나게 된다. 복음이 선교지의 과거 문화와 만날 때는 토착화 신학이 발생하고, 현재 상황과 만날 때는 상황화 신학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대 한국 선교신학에서는 토착과 신학이라는 개념이 '상황화 신학'에 흡수되어 사용되고 있다. 복음의 상황화를 우리는 복음의 문화화 또는 맥락화로도 칭한다. 이 항목은 복음이 과거문화를 만나 그 문화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관점에서 언급된다. 복음이 선교지 문화 속에 뿌리내릴 때, 새로운 토양에 의해 변질되지 않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오히려 토착화가 된 것이다. 그러나 복음이 새로운 토양에 의해서 변질되면 이단적 신학으로 잘못 토착화가 된 것이다.

제10조는 복음의 바른 토착화를 위한 판단 척도를 제시한다. 그 척도는 우리의 경전인 성경이다. 어떤 문화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지만, 모든 문화는 성경적 복음에 의해 판단받아야 한다. 로잔언약은 어떤 문화는 아름답고 선하지만, 모든 문화는 타락한 인간에 의해 죄로 물들었고 악마적이라고 판단한다. 바로 이 점이 WCC의 세계관과 철저히 다른 점이다. 로잔언약은 죄와 타락으로 얼룩진 인간과 문화에 대해 언급한다. 교회는 세상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결코 세속화해서는 안 되며 우상숭배로 악해진 문화와 그대로 아합할 수도 없다고 선언한다. 오히려 교회는 성경 말씀을 잣대로 문화를 변혁시키고 풍요하게 만들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고백한다(계속).

/이동주 소장(선교신학연구소)

“포스트모던 시대, 기성-이머징 교회의 협력 중요”

선교전략가 스투어트 머레이 교수, 제4회 청년사역컨퍼런스서 강연



스튜어트 머레이 교수가 강연을 전하고 있다.

'아나뱃티스트 성서해석학'을 저술한 선교전략가 스투어트 머레이 교수가 2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서울 삼일교회에서 열린 '제4회 청년사역컨퍼런스'에서 '포스트모던 시대,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행사는 청어람 아카데미가 주최했다.

먼저 머레이 교수는 "오래된 패턴, 가치, 실천이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와 중첩되는 전환기의 문화가 현재 우리가 처한 선교 상황"이라며 포스트 모더니티(post-modernity)의 특징을 설명했다. 포스트 모더니티는 진리 추구는 상대적인 것으로,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으며, 역사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현재 순간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전통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취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튜어트 머레이 교수는 "포스트 모더니티는 선교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며 "기독교국가 체제를 따르기를 거부하며 대안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추구했던 아나뱃티스트의 전통은, 교회가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나뱃티스트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진리를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보다 더 겸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러 이슈에 보다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자들에게는 권력과 지위에서 오는 영향력을 인식할 것을 전했으며, 여러 갈등은 강력한 지도자들이 아닌 공동체적 과정을 통해 해결했

다. 변론적 언어와 교리적 정밀함보다는 새로운 언어를 선호했고,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는 영적 경험들을 상당히 강조했다.

스튜어트 머레이 교수는 "중세 기독교국가에서 복음과 문화 사이의 긴장은 크게 사라졌다. 교회는 어디든지 있었고, 신학은 고착화됐고, 선교는 부수적인 것이 됐다. 유럽의 기독교국가 시대 후반에 새로운 교파들이 출현했는데, 이것이 아나뱃티스트운동의 기원"이라며 "교회 개혁은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파괴하지 않고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경계선을 확장할 기회를 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의 이머징교회에 대해 전했다. 그는 "이머징교회는 다수 기성교회의 안전제일 문화에 도전한다. 실험정신, 위협을 감수하는 것, 그리고 창의정신을 고무시킨다"며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은 기성교회와 이머징교회 사이의 상호협력에 달려 있다. 이머징교회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협력한다면 양쪽에게 더 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개혁자가 필요하다. 베드로는 새로운 방식, 열린 마음으로 선교를 감당했었다"며 "하나님의 선교사역이 진전되도록 변화를 수용하고, 상상력 있고, 분별력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태진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선교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엘리야 김 담임목사
새벽 오전 5:30(화-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213) 413-1600/laopendoor.org
임시배치소 3119W.6th.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화-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שא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i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재복음선교교회
은 성도가 사랑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327-9200, T. (213) 598-9932

최운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세계선교교회
하나님의교회,사람들의교회,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388-2105

박승부 장로 17기,27기 수료생배출, 현재4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가수없이 순안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마켓 뒤) T. (213) 381-7273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하듯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6:00 EM예배 오후 2: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25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선교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곧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7:30(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초대교회의가정모임,성경학교노년,만인제사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서 : Naturo pathy Clinic(월-금)
전문의료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초.진.초의 흠뻑, 바른교회간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벨리세(Callng), 고지교(Healing), 기르메(Matring), 왓슨디(Controll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평일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단으로부터 지키며, 이단으로부터 지키며, 선교를 행하는 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전 11:00
3부영아예비 오후 1:00
어린이예비 오전 11:00

중고등부예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박해성 담임목사

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전 9:30
3부예 오전 11:00
4부예 오전 12:50
대학청년부예비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 오전 7:45
2부예 오전 9:45
3부예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 오전 7:30
2부예 오전 9:15
3부예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전 11:00
유치부예비 오전 11:00

중고등부예 오전 11:00
영아예비 오후 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마원철 담임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 오전 9:00
2부예 오전 11:00
영신부 오전 11:00
유니/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 오전 7:45
2부예 오전 10:00
3부예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전 11:00
3부영아예비 오후 2:00
수요일예비 오후 7:30

1부예(EM) 오전 11:00
2부예(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비(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00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 오전 9:00
2부예 오전 11:00
3부예 오후 1:30
수요일예비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 오전 8:30
2부예(EM) 오전 9:45
3부예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비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전 10:00

3부예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물통(통)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 오전 9:00
2부예 오전 11:00
3부예 오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전 10:00
4부예 오후 1:15(EM청년)
5부예 오후 3:00(M청년)

장어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전 11:00
3부예 오전 11:30
4부예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후 12:00
아동부예비 오전 11:50
화성회예비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로우업) 오후 7:45
오전 12:00 (번영)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Biz] 오바마케어 세미나

하나건강보험 대표 데이빗 강이 전하는 Tip!

“오바마케어 공금증 풀어 드립니다”

오바마케어플랜으로 알려진 새 건강보험법 보험. 캘리포니아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Covered California Plan)이라 불리는 이 보험에 대한 문의가 최근 들어 급증했습니다. 2010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안(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Act)이 통과되면서 기존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허가하지 않았던 환자, 그리고 갑자기 아파서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의 보증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에게는 매우 환영할 법안입니다.

내년부터 이 법안을 기초로 미국의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 운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인상에 대한 두려움과 미가입 시 부과되는 벌금 때문에 보험 실행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교회 성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하고자 아래에 오바마케어플랜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바마케어플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2014년에는 1년 소득의 1%, 혹은 95불입니다. 매년 벌금은 증가하며 2015년에는 2%, 2016년에는 1년 소득의 2.5% 혹은 695불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오바마케어는 4가지 종류의 건강플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각각의 플랜에 따라 디덕터블(Deductible)이라고 하는 보험 시작전의 개인부담과 병원 방문시, 본인이 지불해야만 되는 비용에 따라 프리미어, 골드, 실버, 브론즈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플래티넘 건강보험의 특징은 적은 디덕터블, 그리고 적은 코페이입니다. 대신 기본보험료는 다른 플랜에 비해 많이 지불해야 하며, 그 아래 단계적인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브론즈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적은 대신 디덕터블과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빈곤지수(FPL)에 따라 세금 크레딧과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연방빈곤지수(100%=개인 830불, 부부 1407불) 138%부터 400%까지의 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매우 잘 설계된 정부의 기본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1년 소득이 44,680불, 4인가족 기준으로 92,200불 미만의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택스 크레딧(TAX CREDIT)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금액 이상의 소득자는 건강보험료가 150%까지 인

상될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번째는 세금지원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에 대한 TAX CREDIT이 즉시 적용이 됩니다. 즉 TAX CREDIT이 바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 두번째는 Cost-sharing Subsidies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의료 행위를 받는데 본인의 부담금이 높을 경우, 디덕터블 혹은 코페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세번째는 메디칼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1년소득이 15,000불 미만, 4인가족의 경우는 31,180불 미만이면, 메디칼이라고 하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100% 보장보험이면서, 그러나 HMO 플랜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1년 소득이 15,415불 미만의 소득이면, 메디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모든 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다른 예로 개인의 1년소득이 20,000불인 경우 TAX CREDIT 2,304불이 건강보험료에 즉시 적용됩니다. 의료 행위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에 1060불 혹은 한 달에 89불 정도입니다.

개인이 1년에 44,680불 이상의 소득이 되면 세금의 혜택이나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며, 1년 보험부담금은 3,408불이며, 한 달 보험료는 284불이 됩니다.

그럼, 4인가족 기준보험료를 알아보까요? 4인가족의 소득이 31,810불 미만의 경우 메디칼의 자격을 갖게 되며 모든 의료비는 면제됩니다. 4인가족의 소득이 40,000불 정도이면 TAX CREDIT은 4,140불로 보험료가 즉시 공제가 되면서 본인부담금도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4인가족일 경우 모든 가족의 보험료는 한달에 633불 정도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4인가족 소득이 80,000불일 경우는 TEX CREDIT은 4,740불 정도이고 한 달 보험료 633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오바마케어는 한인메디케어 메디칼수혜자에게도 매우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케어 교육세미나=기독교일보와 하나건강보험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세미나 개최를 원하는 교회나 단체는 전화 (213) 739-0403 로 문의하면 됩니다.

[Biz] 건강식품 알고 바로 먹자

지난 겨울 막혔던 혈관~, 대처소 하셔야죠?

혈당조절, 혈관청소에는

세종송보감이 좋습니다.



세종바이오텍 데이빗 서 대표

당뇨와 콜레스테롤에 대한 서울대병원 임상으로 유명한 혈관건강을 위해 <혈관대청소 세종송보감 캠페인>을 벌인다.

기존의 세종송보감은 90캡슐, 180캡슐이 포장되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세종송보감 새포장은 가격은 동일한데 비해 용량이 늘어 100캡슐, 200캡슐로 보다 오래 복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당뇨가 있거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전이 높은 분, 집안에 혈관건강 병력이 있는 분의 예방을 위해, 지난 겨울 건강관리가 부실하셨던 분들에게 세종송보감은 안성맞춤이 될 것이다. (참고: 관련정보사이트 WWW.SEJONGBIOTECH.US)

▷혈액순환장애, 혈관청소를 원하는 분 ▷당뇨, 내당능 장애가 있으신 분 ▷뇌졸중, 신장병이 염려되시는 분의 예방을 위해 ▷과다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염려되시는 분 ▷피부가 거칠고 약성여드름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

가격은 한 박스에 195불이며 1개월 반 복용 가능하다. 3개월 반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은 한 박스 360불이다.

▶문의: 세종바이오텍 본사 (1-877-256-7671), LA (213-383-8899)

세종송보감을 독점공급하고 있는 세종바이오텍은 지난 겨울동안 움츠리고 있었

단편소설

고마운 왼손(4)

도시 말대로 살아왔나 생각해 본다. 그의 설명대로 살아온 듯하기도 하고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기도 하다. 생각해 보니 일반적인 말 아닌가? 누구의 인생에서도 그럴 것 같다.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40대 중반에 들어서 무슨 사고를 당하여 건강을 해칠지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다. 혹 그 운명적 사고가 이번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지나간다.

손이 운명을 창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순응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손은 분명 생각을 구체화하고 보여주는 창조적 기능을 갖추고 있기는 하다. 손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동물일수록 고등동물이다. 인간의 생각을 형태와 모양을 보여주어 의도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손만이 사람의 의도를 완성한다. 우리가 먹는 것도 손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성경의 말은 신에게도 손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인간은 신의 손에 의해 창조된 작품이라는 말일 게다. 신은 인간에게 손을 주어 자신의 자유의지와 창조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 인간의 의도를 수행하는 손이 곧 예술이요 역사인 것이다. 이 와중에 무슨 개통철학인가 하는 생각이 밀려드는데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진다.

평상복 차림의 백인 중년 여성이다. 금발에 얼굴과 상반신이 눈에 띄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통증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지우지는 못하고 있다. 상반신에 비해 엉덩이가 비만이고 장단지가 굵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기우똥거린다. 가능하면 하반신을 보이지 않는 것이 그녀를 처음 대하는 사람으로서 예의일 거라 생각한다. 환한 웃음에 드러난 치아가 아름답다. 내 얼굴에도 반사적으로 웃음이 지어진다. 쓴웃음이 아닌 애교기가 섞여진 것 같아 싫다.

남자 의사에게는 쓴웃음을 짓고 여자 의사에게는 간사함이 배인 미소를 짓는 것에 역겨움이 느껴진다. 왼손을 무시하고 살아온 마음의 근원이 이러한 차별이었던 같다. 같은 모습으로 흑인 의사가 다가왔다면 어떤 미소를 지었을까 생각하니 멋쩍다. 분명 같은 미소가 아니었을 것 같아서다. 차별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차별하며 사는 모습을 느끼며 미소를 지은다.

그녀는 수술을 위해 응급호출을 받고 온 외과의사다. 버지니아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며 곧 수술실로 옮겨 수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간호사에게 수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다. 여의사의 손이 내 손을 만진다. 내 손이 그녀의 손에 맡겨진다. 그녀의 손놀림에 따라 내 왼손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왼손 중지 끝이 살아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수술 전에도 여러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X-ray 사진을 다시 여러 장 찍고, 수술이 잘못되어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병원과 의사가 책임이 없다는 서류에 동의하는 서명도 해야 했다. 아무래도 인지 끝에는 플라스틱 지지대를 박아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는 손끝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수술대의 눕혀진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

다. 진신마취 주사가 따끔하다. 따끔한 느낌이 군에서 동등으로 두드려 맞을 때보다 싫다. 작은 아픔이 큰 아픔보다 싫은 순간이다. 아니면 작은 통증과 큰 통증을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간호사들이 마취를 확인하려는 듯 이름과 나이를 자주 묻는다. 간호사의 질문은 들리는데 말을 할 수 없다. 손을 움직여 보려 하지만 생각뿐이다. 생각대로 행동할 수 없는 이 순간이 죽음에 가까운 지점일 게다. 모든 것이 아득해지며 먼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낀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한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몸이 날 듯 가볍다. 생각이란 것 때문에 몸이 무거웠던 것 같다고 믿는다. 생각 없이 걷는 길은 갈림길이 없다. 뒤돌아갈 수 없는 길, 앞으로만 가야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길 외에는 나무 하나 들꽃 하나가 없는 길, 바람소리도 새들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순간 저승을 향해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섬뜩해진다.

동행이 있나 주위를 살핀다. 몇 사람이 앞에서 걷고 있다. 걸음을 재촉하여 그들 곁에서 걷는다. 무표정한 얼굴에 말하는 사람이 없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어본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백발을 어깨 밑까지 늘어뜨린 노인을 본다. 이 길에 익숙한 노인이란 생각이 든다. 그에게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어디에 당도하느냐고 묻는다.

내 말을 들은 그는 참으로 미묘한 표정을 짓는다. 한심하다는 표정이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난감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튀어 나온다.

“한 번 믿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다면. 그러다보니 반성하고 고치기보다 후회만 하며 살아온 거지. 이 길은 후회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걷는 길이지. 자기 한 일에 자책하며 그렇다고 새롭게 살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한 모든 후회는 유죄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후회가 유죄가 아니라 후회만 했을 뿐 반성하고 고치지 않은 생각과 행동이 유죄였다. 후회는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며 자책만 하며 산 것이 문제였다. 나는 후회하며 지내온 일들을 애써 지우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기억하지 못해 애를 쓰며 걷고 있다.

나는 내색은 하지 못하면서 노인에게 그래도 그런 후회로만 살아온 것 같지 않다고 변명하고 싶어 한다. 내가 이 길을 왜 걷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혹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노인이 걷던 길을 멈추더니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한다. 나는 그 말에 가벼운 충격을 받으며 당황한다. 무감각하던 다친 왼손에 어떤 느낌이 연결되는 것 같다. 나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묻는 것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연다. 내가 한 후회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은 일 없는 것 같다고 한다.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나를 뻔히 바라본다. 노인의 얼굴이 서서히 다른 사람의 얼굴로 변해 간다. <계속>

글=주경로 작가

상처의 무게

어느 젊은이가 억울하게 행한 실수로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흥분한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 그에게 돌맹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 줄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젊은이가 믿고 사랑하던 친구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자신도 무언가 젊은이에게 던져야겠다고 생각하고 길 옆에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무수히 쏟아지는 돌맹이에도 잘 견뎌내던 젊은이가 그 장미꽃 한 송이에 맞자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미꽃은 거의 충격을 주지 않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돌맹이에도 꽃꽂하게 견뎌내던 젊은이가 어떻게 작은 장미꽃 한 송이에 쓰러졌을까요? 물리적 무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주는 상처입니다. 내면에 주어지는 아픔이 객관적 아픔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원수나 모르는 사람이 던지는 돌맹이는

아무리 강한 충격을 주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대적하기 위해 일부러 쏟아붓는 비난이기 때문에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비난의 비수를 들이대면, 그랜 충격이 큼니다. 마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아픔이 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거절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은 것도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를 배신하고 관원들에게 넘겨준 장본인이 3년을 함께 했던 자기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픔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 상처를 잘 이겨내셨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해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상처의 희생자(victim)가 아닌 상처의 치유자(healer)가 되셔야 할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기기엔 벅찬 상처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치유자로 살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렘!

로스앤젤레스한민교회 박성근 목사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가나안장로교회, 김경업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김성은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한중수 담임목사, 엘바인침례교회, 지사른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김철민 장로, 김삼도 목사, 엘바인 할렐루야교회,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 교회, 허기암 담임목사, 남가주잠실교회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HQ 구연산 사랑입니다!

세일기간 : 3월중 구연산 신제품 출시될 때까지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무료증정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원산지 개선과 원산여부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280 \$100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270 \$100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280 \$100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신제품 출시 안내

HQ구연산을 원료 그대로 물에 타서 드시다 보면 치아가 염려되고 신맛으로 인해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캡슐 제품을 내 놓습니다. 구연산과 아사이베리, 마카, 과라나, 미국 야생 산삼 등을 넣어서 위장을 보호하며 보다 더 강력한 HQ구연산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기쁘게되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몰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피로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율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리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편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육을 먹는 짐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의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어떻게 사람을 얻는가

신상이반/하진익 | 더난출판사 | 304쪽

오늘날 경영에서 리더의 개인적 능력이나 학벌, 인맥, 배경보다는 인재를 알아보고 양성하며 활용하는 기술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 책은 3000년 중국 역사와 고전을 통해 유방의 용인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 오늘날 경영계와 리더십의 화두로 떠오른 인재경영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다.



어머니의 눈물과 영경귀

김위식 | 쿰란 출판사 | 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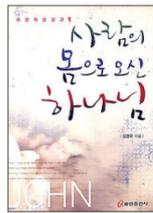
스코틀랜드에서 16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위식 선교사의 첫번째 시집으로, 영어로 번역된 시가 같이 실려 있는 한영 시집이다. 선교의 비전을 품고 도착한 스코틀랜드에 만발해 있는 영경귀를 보고 느꼈던 시상을 비롯 선교와 복음, 어린시절의 추억을 노래하는 시들을 담고 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김영규 | 쿰란출판사 | 370쪽

김영규 목사의 요한복음 설교 시리즈 중 첫번째 책으로, 5장까지의 설교를 담고 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주는 신성한 책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성삼위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내용이 깊다. 저자는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연필로 쓴 페이스북, 芝山通信

김항식 | 나눔 | 332쪽

1987년 직선제 도입 이래 최장수 재임 국무총리를 끝으로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가 그동안의 편지들을 모아 '국민에게 쓴 편지 모음'인 <연필로 쓴 페이스북, 芝山通信>을 펴냈다. 단상과 일상적 고민이 담긴 편지에서 법관, 관료들에게 느끼기 힘든 인간미가 물씬 풍긴다.



REVIEW

“화해는 특별한 은사나 사역, 프로그램이 아니라, 과정”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선물 바라는 것이 화해의 여정

2004년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된 세계복음화대회 로잔회의의 일주일간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30개 정도의 분과 모임에 각각 5분간 미래 기독교 선교를 위한 권고안을 총회에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다. 스물 두번째 발표 차례였던 '화해 분과'는, 발표 대신 세족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가톨릭 신부와 동방정교회 사제와 복음주의 개신교 목사,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 흑인과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후투족과 투치족, 남성과 여성 등 12명은 차례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었다. 고요하던 회의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한 마디 설명도 없었지만 핵심 내용은 고스란히 전달됐다. “교회는 갈라진 선을 따라 스스로를 명백하게 분리시키지만, 분열을 넘어 무릎을 꿇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인 것이다.”

<화해의 제자도(원제 Reconci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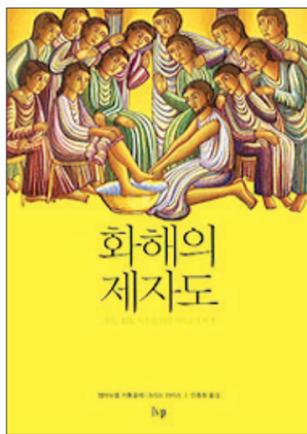
All Things·IVP)>를 쓴 저자는 이때 화해 분과를 이끌었던 크리스 라이스(Chris Rice)이다. 그는 듀크대 신학대학원 화해 센터를 함께 설립한 에마누엘 카통골레(Emmanuel Katongole)와 함께 이 글을 썼다.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바라는 일반인들의 탐색으로 미국 IVP와 듀크대 신학대학원이 함께 만든 '화해 자료 시리즈' 일환인 이 책은, 저자들의 '협업' 자체에서부터 주제의식이 드러난다. 둘은 개신교인과 로마가톨릭 교인, 목회자와 신학자, 활동가와 교수, 미국인과 아프리카인으로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편이적인 범주와 경계와 소속 집단에 대한 중심심을 넘어서고 이를 거부한다. 분열된 세상에서 더 나은 것을 찾아나선 우리는 불안한 순례자로서 연대감을 느낀다.”

화해, 평화라는 단어가 넘쳐나 유행하는 시대, 이제는 '힐링'까지 회자되는 시대가 됐다.

국가 차원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액의 배상금을 나누고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화해 전문가'들까지 등장했지만, 분열의 골은 더 깊어지고 약감정은 계속 쌓여만 가고 법원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만 간다. 교계에 마저 '피스메이커'가 생겨났다. 그러나 화해의 '악수(握手)'는 오해의 '악수(惡手)'가 되기 일쑤다. 저자들은 화해가 '대중화'되면서, 그 개념이 모호해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이벤트'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화해의 제자도>의 저자들은 말한다. 화해가 해법이나 최종 결과물이 될 수 없다고. “화해는 실로 여정으로의 초대다. 그것은 과정이며, 지속적인 탐색이다.” 이를 여정을 무사히 지 내려면 '선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화해의 제자도 크리스 라이스 외 | IVP | 192쪽

세상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고, 이 여정을 떠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 책의 중심에 담긴 선

물 한 가지는 희망이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그 희망은, 현재 상황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필연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깨어진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항상 희망의 씨앗을 심고 계신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과거를 배제해선 안 된다.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사영리에 나오듯 하나님과의 끊긴 다리를 예수님을 통해 잇는 화해의 장이지만, “잘못을 저질렀으나 결코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값싼 은혜를 제공함으로써 너무 서둘러 과거를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급박한 분열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구호나 중재, 변호 등 응급 처치에만 치중해선 안 된다. “도피로서의 화해가 복음을 사회 현실에서 단절시킨다면, 소망 활동으로서의 화해는 교회를 사회봉사단체로 바꾸어 버린다.”

이대용 기자

'평신도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

11년간 300명 전도한

김인태 안수집사 초청 간증집회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11년간 300명 전도한 전도왕 김인태 안수집사가 말하는 전도노하우.....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전 성경을 7번이나 찢었던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변화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전도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정

5월 4일 오후 6시 30분

감사한인교회(김영길목사)

문의:714-521-0991

약력
일본 아바노 아이코 미용학교 졸업
독일 슈바츠코프 미용학교 한국강사
영국 알란 인터내셔널 미용학교 강사
88년 한국대표 아시아 미용선수권대회 우승
프로 태권도시범단 봉사,공인태권도 4단
나성 순복음 교회 안수집사
나성 순복음 교회 11년째 전도왕

주 관 : 감사한인교회, 나성 소망교회, 남가주 광염교회

후 원 : 기독교일보

에텔 워터의 ‘폭풍우를 지날 때’



고승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기차를 타고 미국 조지아 주의 어느 조그마한 도시를 지날 때, 수선 가계의 벽에 “슬픔에 잠긴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음”이라고 쓰여진 큰 간판을 보았습니다. 이 간판은 과장이 있기는 해도 효과적인 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치료할 방법이 있는가?”

어디에서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친구, 가족, 직장 동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슬픔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슬픔에 빠진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데다.”(시147:3) 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능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흑인 가수였던 에텔 워터는 ‘폭풍우를 지날 때’라는 노래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처녀 때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성폭행을 당해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대와 멸시, 조롱과 구박 속에서 자랐고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목을 조른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목소리가 좋아 훌륭한 가수가 됩니다.

‘폭풍우를 지날 때’는 바로 이러한 그의 운명을 노래하며 눈물 흘리고, 듣는 이도 눈물 흘리게 합니다. ‘폭풍우를 지날 때’는 바로 이런 아픔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 목을 조르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 질시와 모욕의 눈으로 대했던 사회 등이 모두를 용서할 수 있었고 상처와 아픈 추억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 파티에 참석한 그녀에게 사람들이 ‘폭풍우를 지날 때’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그녀는 고백하기

를 “나는 이제 강간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딸입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우를 지날 때’ 라는 원한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와 영광과 기쁨의 찬송만 부를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 한탄과 운명의 노래 대신 감사와 영광과 기쁨이 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 17)라고 한 바울의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영불리신(影不離身)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신의 “그림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걸어 다닐 때마다 뒤에서 슬그머니 쫓아오는 음산한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작정을 하고 달음박질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도망치면 그림자를 떨구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빨리 뛰면 땀수룩 그림자도 속력을 내어 따라왔습니다. 그림자를 떨쳐내기에는 아직 충분한 속력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고 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뜻을 이루기 전에 탈진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교사가 “영불리신”(影不離身)입니다. “그림자는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그늘로 피하든지,

아니면 큰 양산을 쓰는 것이 답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교활하고 꾀가 많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 하나밖에 없는 착한 형 “에서”를 역사에 길이 남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팔죽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먹는 명칭이 가 되게 한 것입니다.

고령의 연약한 아버지 “이삭”을 아들도 못 알아보는 무능한 늙은이로 만들었습니다. 삼촌 라반은 불쌍한 조카의 임금도 착취하는 파렴치한으로 인식시켰습니다.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농락을 당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했으니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은 야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와 눈물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그의 이름 “야곱”은 참으로 잘 지은 이름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인생의 검은 그림자를 떼어 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고, 삼촌 라반의 추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네 명의 아내들에게 둘러 싸여 바람 잘 날 없는 고달픈 가정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큰 성공을 쟁취하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달릴 때, 그 “그림자”도 함께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위기의 순간에 만난

압박강은 야곱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거룩한 천사를 부여잡고 “내 인생을 바꾸어 달라”고 울부짖으며 매어달립니다.

그는 환도뼈가 탈골되는 아픔 속에서도 결코 천사를 놓아 주지 않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나를 축복하소서!” 짧은 질문과 대답 속에 인생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실존적인 어두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사는 제일 먼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어두운 인생 그림자가 광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의 존재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영불리신을 뛰어넘는 신비가 신앙의 깊은 묘미입니다.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6월 15일)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24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회 중회장 황수원목사, 중장 강부용 박사, 재단 이사장 류당열 목사

소현세자와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라는 세 강대국 사이에 끼여 편할 날이 없었던 고난의 민족은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대전란을 겪고 난 지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북으로부터 또 다른 침략을 받았다. 만주 여진족의 추장 누루하치(奴兒哈赤)는 1616년 후금(後金)을 세워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중국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더니 급기야 1636년(인조 14년) 국호를 청(淸)이라 칭하고 중원(中原)의 왕자로 군림하였다. 이들은 새 나라를 세운 여세를 몰아 그 침략의 근성을 내보이면서 조선에게 군신(君臣) 관계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청 태종은 왜란의 상처가 아물지 못한 채 국력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던 조선에 친히 10

만의 대병을 거느리고 무자비한 침공을 감행하였다. 경황 중에 미처 난을 피하지 못한 인조(仁祖)와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급히 피신하였다. 성중에서는 오랑캐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적화파(斥和派)와 승산이 없으니 빨리 화해를 해야 한다는 주화파(主和派)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식량은 바닥이 나고 각 도의 원병은 도착하지 못했고, 강화도가 함락되어 인조와 백관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난한 지 45일 만인 1637년 정월, 끝내 백기를 들어 종사에 쫓겨 수 없는 수치의 역사를 남기고 말았다. 지금의 서울 서쪽 송파(松坡)인 삼전도(三田渡)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오랑캐라고 천시하고 멸시하던 청 태종 앞에 종자(從者)가 되어 조공(朝貢)을 서약하는 천추의 수치스런 역사를 남기고 말았다. 청 태종은 조선 정복 후 귀로에 오르면서 소현세자(昭顯世子) 등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갔다. 1643년 청 태종이 죽고 그의 셋째 아들 세조(世祖)가 즉위하여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수도 북경을 점령하여 공식적으로 청나라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만주 심양에서 8년 동안이나 불모로 잡혀 있던 세자 소현 등 조선의 인

질들도 북경으로 이송되었다. 이때 소현세자와 천주교회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 북경에는 천주교 신부들 여러 명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소현과 친교를 맺은 신부는 북경 교구의 주교 독일인 예수회 소속 아담 샬(Adam Schall:湯若望, 1591~1666)이었다. 그는 지금의 관상대장(觀象臺長)에 해당하는 흡천감감정(欽天監監正)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새로 건설된 청나라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마침 신부 샬의 숙소와 소현의 숙소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접촉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전통적으로 ‘위에서 아래로’(from top to bottom)의 선교 전략을 수행하는 천주교 신부들에게 앞으로 조선의 왕이 될 세자가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소현 역시 불모로 잡혀와 살벌한 만주 별관에서 8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스럽게 보냈고, 북경에서의 불모 생활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서양인을 처음 만났을 뿐 아니라 그들의 선진된 문명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그들이 소개하는 서구의 학문과 문명은 학구적인 세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세자는 살이 보여 주는 물건들을 호기심 있게 살펴보았다.

세자는 친절하게 접근해 오는 신부 샬과 교제를 계속하면서, 신부가 보여 주는 서양의 여러 과학서적과 천문, 지리, 역사(曆書)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신부는 또한 천주교의 교리서를 전해주며 일독(一讀)을 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세자는 서구의 여러 과학서와 더불어 천주교의 교의(教儀)에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소현세자는 1645년(인조 23년) 2월, 북경으로 이거한 지 두 달 만에 불모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다. 아담 샬은 귀국하는 세자에게 여러 가지 서양 서적과 천주교 교리서 그리고 천주상(天主像)까지 주면서 가지고 가도록 권면하였다. 그러나 세자는 다른 서양 서적은 받으면서도 교리서와 천주상은 다음과 같은 말로 정중히 거절하였다. “서양의 종교 서적과 천주상을 우리나라에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태산 같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천주교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하여 천주상을 더럽힐까 두려운 바입니다. 그러므로 천주상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소현이 서구의 과학문명은 접שו하면서 서양의 종교는 거부한 일을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이라 한다. 즉 동양의 도를 고수하면서, 서양의 문명은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중국에서

는 이를 중체서용(中體西用)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화혼양재(和魂洋才)라 한다. 한국은 아직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기에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삶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청나라 황제에게 청하여 신앙이 돈독한 환관 5명과 궁녀 몇을 황제가 하사하는 형식으로 소현에게 딸려 보내면서 세자의 개종을 성사 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세자는 긴 불모 생활의 고독과 어려운 귀환 길의 여독에 건강을 잃고 귀국한 지 70여일 만에 학질로 3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세자 죽음의 원인이 중국에서 가져온 비단 때문이라는 소문이 궁내에 퍼지자 북경에서 가져온 서학 서적들과 진기한 물품들은 모두 소각되었고, 세자를 따라 중국에서 온 환관들과 궁녀들도 조선에 온 지 석 달만인 1645년(인조 23년) 7월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므로 소현세자가 불모지에서 접했던 가톨릭도 이 땅에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세자의 죽음과 더불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만일 세자를 통해 가톨릭이 이 때 조선에 전해졌다면 한국 가톨릭의 역사는 1784년 이승훈이 북경 북성당에서 영세를 받은 때보다도 140년은 앞당겨졌을 것이다. (계속)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아홉째 지팡이



이학진 장로
(성경 통독과 이해를 위한 썩난 지팡이) 저자

중간 시대와 신약성경의 배경,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시대가 BC 400여년에 끝나고 선지자가 없는 약 400년간의 공백기간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성경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침묵의 시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심한 변화를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의 특성을 지리적 배경, 기후적 특성,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역사적 배경으로 나누어

서 살펴봄으로써 신약성경을 더욱 쉽게 직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지리적 배경** 팔레스타인 땅은 최초로 인류의 문명이 탄생한 곳으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나이 반도에 이르는 초생달 모양의 지형 안에 속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다른 문명의 중심지인 이집트가 위치한 지리적·전략적 중심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을 연결하는 곳에 위치하여, 그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교량적 역할을 해 왔으며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네 개의 지방으로 나뉘는데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로서의 갈릴리지역,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지역(에브라임 산지), 예루살렘이 중심인 유대지역,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묘사되기도 하는 요단 동편지역이 있습니다. **▶ 기후적 특성** 팔레스타인은 우기(11-4월)와 건

기(5-10월)의 두 계절이 있는데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건기는 섭씨 40도 이상의 뜨거운 햇빛과 차가운 밤 그리고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기후를 말합니다. 극명한 일교차와 부족한 물로 인해 밤새 내리는 이슬을 주된 수원(시 133, 110편 참고)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물은 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신 11:11)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에는 많은 강수량으로 인하여 말라붙은 강이 제 모습을 찾고(Wadi), 사막도 목초지로 변할 정도이므로 농업이 활기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희절, 칠칠절, 초막절 등의 이스라엘 절기가 우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후적 상황이 이스라엘의 농업 형태를 결정하며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었습니다. **▶ 사회·문화적 배경** 첫째, 1세기 유대 공동체는 매우 빈곤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유대 지역의 대부분이 광야와 산지로 되어 있으며, 비옥한 지역도 대규모 농사보다는 기후적인 상황으로 목축을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지중해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로 인하여 올리브 재배가 가장 높은 수익원이었으며 갈릴리 지역은 어업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부 부재로 인하여 정세가 매우 불안하였고 로마 등의 통치권의 압박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되었으며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떠나서 각지에서 디아스포라를 이루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권력과 부가 종교적 질서에 의하여 분배되어지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으며 헤롯 성전이 건축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순례가 이어졌고 이들이 인하여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독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종교적 공동체라는 특성을 유지하였으며, 바리새파, 사두개인,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에센파, 열심당, 젤롯당 등의 종교적 계층이 생겨났고, 유대인 공동체를 통치하던 산헤드린(공회)이 있었습니다. **▶ 역사적 배경** 또한 팔레스타인은 지리적, 전략적 중심지입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강대국은 연대적으로 애굽, 앗수르(앗시리아), 바벨론(BC 612-536년), 메데(메디아 제국), 바사(페르시아) (BC 539-331년), 알렉산더 제국(히랍)(BC 336-165년), 로마제국(BC 63-AD 565년)의 순으로 바뀝니다(단 2장의 예외).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하여 헬라문화와 철학사상이 전파되었으며,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가문과 로마제국이 이 지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셨는데 (1)그 전파의 대표주자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으며 (2)언어는 헬라어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3)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70인역)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 또한 로마의 패권으로 인해 소식을 실어 나를 잘 달린 도로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런 준비가 모두 끝난 다음이었습니다(행 1:8). 이러한 배경의 특성들을 생각하며 성경의 장면들을 교차시키면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어가는데 좀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2013년 10월 WCC 부산총회 개최를 결사 반대하며 공개토론(Proposal for Open Debate)을 제의함

세계교회협의회(WCC)총무 트비트, WCC 10차 총회유치위원장 김삼환 목사, 준비위원장 김동엽 목사, NCKK 전 회장 이영훈 목사와 총무 김영주 목사, 이형기 박사 등 WCC 지지자들.

1. 비 성경적 일치·연합운동(Unbiblical Ecumenical Movement)을 하는 WCC

- WCC는 “교리는 달리하나 봉사는 같이한다”(Doctrine divides, Service unites)라는 허울 좋은 슬로건을 내걸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앙고백이 일치하지 않는 비 성경적 연합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 로마 천주교와의 연합운동(JWG: Joint Working Group, 1960. 6.)
- 공동성찬(BEM: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1982. 1. 15. 웨부리의 리마)제정
- 개신교들 상호간 연합운동
- 정의교리공동선언문(A Joint Declaration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제정: 1999. 10. 31.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세계연맹(LWF)은 정의 문제를 더 이상 활과활부는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 윤리·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WCC

- 동성애는 동성(同性)끼리는 물론, 이성(異性)들과도 성관계를 갖는 더럽고, 추하고, 가증하고 음란한 성관계를 말한다.
- WCC는 제5·9차 총회에서 계속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교단들 상당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들과 목사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미국장로교(PCUSA), 연합감리교(UMC), 성공회(EC), 연합그리스도교(UCC), 침례교(ABC), 캐나다연합교회, 영국성공회, 영국연합교회, 영국감리교, 화란개혁교회(NHK), 화란개혁교회(RC in Netherlands), 스웨덴교회(루터교), 덴마크루터교회, 독일복음교회, 호주연합교회, 남아프리카 성공회 등이다.
- 동성애는 인권문제가 아니다. 최근 일부 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용납할 수 없다.

3. 종교다원주의(Religicus Pluralism)를 주장하는 WCC

-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기독교와 타종교들을 동등시하며, 타종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혼합주의(Syncretism)로, WCC는 제3·9차 총회에서 종교다원주의 연합운동을 펼쳤다.
- 제7차 총회(1991.2.7-20, 호주 캔버라)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시크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가톨릭 등 15개 종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동참케 하였다.
- 당시 정현경 교수(이화여대)는 초혼제(Invocation of the Spirits of Deceaseds: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어그들의 한을 풀이주는 제사)로 한의 신학, 불학론 등을 주장하였다.

-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의 절대성(성경만! 하나님만! 그리스도만!)의 구원을 부인하는 진도 무용론, 타종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혼합주의이다.

4. 사상·이념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WCC (공산 게릴라 단체들 지원)

- WCC는 중앙위원회(1969.8.12-13 캔터베리)에서 인종차별투쟁사업부(Program to Combat Racism)를 설치했다.
- 1970-1988년까지 성도들이 바친 귀한 천문학적 현금을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인민해방단체(SWAPO), 아프리카전국회의(ANC), 아자니아 범아프리카회의(PAC),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 모잠비크해방전선(MLFF), 짐바브웨애국전선(PFIZ) 등 공산게릴라 단체들을 위시한 수많은 좌파 단체들에게 천문학적 자금을 제공해 왔다.

5. 북한 공산정권의 통일정책과 100% 일치하는 WCC

- WCC는 남한에 종교를 탄압하는 무서운 세력이 있으나, 북한에는 약 12,000명의 개신교도와 3,000명의 가톨릭교도, 그리고 가정교회들이 있다고 허위 선전했다(One World, 1978, 7/8호). (한반도 평화통일 선언문)은 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 ②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포함한 모든 외세 철수할 것. 남한에 있는 UN 사령부를 해체할 것 ③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를 제거할 것 등을 주장한다.
- WCC는 조선기독교연맹에 1988년 8만 달러를 지원하여 불순교회를 건축하였다(One World, 1988, 1-2 p.21).

따라서 WCC 부산총회 개최를 결사 반대한다.



조영엽 박사

- ① (사)성경보수개혁교회단체연합회(02-2613-7755) 대표회장(이사장 정원식 전 국무총리)
- ② (사)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신학특별위원

조영엽 박사의 저서들은 CLC(02-586-8761~3)에서 총판하고 있습니다.

Life



이스라엘 탐방

기독교인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2)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가정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유대인 가정의 주부들은 안식일 준비로 분주하게 보낸다고 이미 소개했다. 주부들은 집안을 청소하고, 저녁 안식일 만찬(Sabbath Meal)을 준비한다. 안식

일에만 사용하는 식기를 꺼내 세척하고 가장 좋은 음식을 요리하여 테이블에 마련한다. 또 안식일에 할 수 없는, 미리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고 하는 것도 대부분 주부들의 몫이다. 안식일 준비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은 전구와 가전

제품들이 작동되는 시간을 미리 설정하는 일이다. 타이머를 작동시켜서 안식일에 전등이 자동으로 점멸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냉장고의 문을 열 때에 불이 켜지지 않도록 전구를 돌려 놓거나 빼놓는다.

안식일에는 두 개의 촛불을 밝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을 외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촛불은 해가 넘어가기 18분 이내에 밝혀야 하는데, 이것 역시 여인들이 담당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하루 쉰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유월절, 칠칠절, 대속죄일, 초막절,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절기보다도 중요한 날이다.

어느 랍비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맞는 마음가짐은 마치 어떤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고 그를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2-3시가 되면 일하던 남자들은 일터를 떠나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목욕하여 단장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는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가족들은 근처 회당을 찾아 약 45분 정도 저녁 회당 예배에 참석한다. 회당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모두 안식일 만찬(Sabbath Meal) 식탁에 앉는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가족 중 남자가 키 두쉬를 암송한다. 그리고 안식일 만찬을 먹는다. 이후에는 축복문을 암송하고, 모든 가족이 토라를 읽거나 늦은 시간까지 대화하는 것이 일반 유대인 가정의 안식일 저녁 모습이다.

다음날 아침에는 근처 회당을 찾아 보통 9시에 시작되어 12시까지 계속되는 안식일 예배에 참석한다. 예배 후에는 키두쉬를 암송한다. 안식일 오후 식사는 (안식일에 조리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음식이 천천히 조리되도록 해서 만든 쉰

란드(Cholent), 곧 콩을 섞어 만든 스투를 먹는다. 그리고 축복문을 암송하면 대략 오후 2시 정도이다. 이후에는 토라를 읽거나 대화하거나 간단한 게임을 즐긴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 안식일 세번째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늦은 오후에 먹는 간단한 식사다. 그리고 해가 지면서 안식일은 끝난다. 밤하늘에 세 개의 별이 보이는 시간이 공적으로 안식일이 종결되는 시간인데, 그때는 해가 진 지 약 40분 후가 된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합달라'라고 부르는 안식일 종결 의식을 갖는다. '합달라'는 분리, 구분을 의미한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안식일과 일하는 다른 날을 구분하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성경의 안식일에서 무엇을 취할 것이며 또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글=이주섭 목사



안식일 아침 예루살렘 한 마을의 모습. 공공 교통수단은 모두 멈추고 거리는 조용하다.

기쁨의 가정

내가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If I were starting my family again". 이는 존 엠 드레셔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다. 아주 짧게 만든 책이지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도 많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 쉬운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정 안에서의 역할은 차후로 미루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내가 간과한 것들은 나를 마냥 기다려 주지만은 않는다. 부모에게 의존하고 언제나 붙어 있고 싶어 하던 아이들의 모습은 어느새 점차로 사라진다. 잠시라도 저를 떠나 있으면 불안해하던 그 아이가 어느새 커버린 것이다. 언제나 나에게 말을 걸고 내가 들어주면 행복해 하던 그 아이들은 사라지고, 깊은 이야기는 친구들과 하는 아이들이 되어 있다. 물론 부모가 더 잘했더라면 아마도

여전히 자녀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존 엠 드레셔는 그의 책 '내가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에서 다음과 같이 열 가지를 말한다.

1. "아내를 더 사랑하겠다"
2. "아이들과 더 많이 웃겠다"
3. "더 잘 듣겠다"
4. "더 정직하겠다"
5. "가족을 위해 더 기도하겠다"
6.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겠다"
7. "더 많이 격려하겠다"
8. "작은 일에 더 관심을 보이겠다"
9. "소속감을 더 계발하겠다"
10. "보다 친숙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겠다"

우리 모두 이 열 가지를 생의 마지막에 "맞아!"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

라, 현재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스티브 잡스도 생애 마지막에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제쳐두고 덜 중요한 것들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경향이 많다.

드레셔의 목록에서 첫번째가 배우자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도 배우자이고, 가장 소홀하기 쉬운 대상도 배우자이고, 멀어지면 남이 될 수 있는 사람도 배우자인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낼 수 있는 대상도 배우자다.

우리는 친밀하고 가깝기에 쉽게 대하거나 거침없이 혹은 깊은 생각 없이 말하기 쉽다. 그런데 더 조심스럽게 대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할 대상도 배우자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도 부모의 건강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들의 사랑을 보면서 자녀들은 안정감을 갖게 되고, 건강한 사람이 무엇인지 배워갈 수 있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에 의해 교육되기보다는 부모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배워간다.

그래서 부모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생애를 마친다면 가장 아쉬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그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간다면 좀 더 나은 오늘을 살아서 후회가 덜 남지 않을까. 길지 않은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에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후회없는 인생을 살자. 글=김춘 목사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 KFDA공인 건강기능식품
- 1박스(1개월분) 195불 ▪ 1박스(3개월분) 360불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오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진짜 발효삼? 진짜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 (미주북음방송국4층)
Tel. 213-383-8899

한인담당
Alex Shin
www.winhyundai.com
El Monte

WIN HYUNDAI at El Monte

EQUUS SIGNATURE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0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499 Lease
per month plus tax.

SONAT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109 Lease
per month plus tax.

ELANTR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3,199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

\$99 Lease
per month plus tax.

ACCENT GLS MT 2013

VIN# NDU423702

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89 Lease
per month plus tax.

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

Assurance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l. 562 900 2399

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

순백의 빙하 따라가는 낭만 항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독특한 레포트로 가득한 얼음나라, 알래스카

'휴양'이란 단어가 너무도 잘 어울리는 여행이 있다. 객실을 나서면 고급 레스토랑들과 브랜드샵이 즐비하고 말끔히 턱시도를 차려 입은 연주자의 라 이브연주를 들으며, 브로드웨이급 공연장과 도서관, 카지노, 결혼식용 채플, 피트니스 센터를 지나 위로 오르면 드넓은 바다의 시원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여행, 그 풍경을 눈앞에 두고 선상에서 즐길 수 있는 칵테일바, 스파와 자쿠지, 라이브공연장, 미니골프장, 수영장 등. 크루즈 여행은 휴양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린다.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여행은 호화 유람선으로 이동하면서 고급 부대시설과 선상 프로그램을 즐기고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관광 상품이다. 비슷한 비용의 비행기나 자동차 여행에 비해 한껏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내심 관심은 있지만 짐짓 거리를 두는 경향을 종종 본다. '크루즈 여행은 비싸다'는 선입관 때문이다. 일단 크루즈 여행의 내막을 살펴보면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19세기 말 선보인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층이나 여생을 즐기려는 노년층의 전유물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지만 요즘은 다양한 형태, 비교적 저렴한 크루즈 여행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상품가격 외에는 팁을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이 없다. 호텔 급 식사, 간식과 특별 정찬이 포함되어 있고 기항지에서의 교통, 배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파티, 공연, 강습 등도 무료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레포트 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All Inclusive' 여행이다. 이 모든 것을 즐길 자유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함께 가진 여유야말로 크루즈 여행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매력이다. 크루즈 회사는 크루즈 요점만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쇼핑, 카지노, 기항지 육상관광 등 수익모델이 여럿이기에 기본비용은 점차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크루즈는 떠다니는 리조트다. 먹고 즐기고 자고 있는 사이 다음 여행지로 이동

하기에 이동에 투자할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 할 수 있다. 일반 여행에서 교통, 호텔, 식사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을 따진다면, 크루즈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실속 여행이다. 실속은 기본, 여유까지 넘치기에 크루즈 여행은 기대 그 이상의 휴양여행일 수 밖에 없다.

크루즈 여행을 선택할 때는 항상 계절을 먼저 고려하자. 알래스카는 5-9월, 지중해 4-12월, 북유럽 5-8월, 중동 1-4월, 남태평양 11월~이듬해 4월, 남미는 12월~이듬해 3월까지가 최적기이다. 드물게 다른 시기에 떠나는 크루즈가 있으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하와이, 바하마, 멕시코, 카리브해, 아시아는 연중 이용 가능하다.

알래스카 크루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끝이 만나는 지구의 마지막 자산 알래스카는 비행기나 자동차로 연결하기 어려운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최고의 크루즈 여행지로 각광 받는 곳이다. 크루즈의 주요 기항지인 주노, 시카, 아이시스트레이트 포인트 등은 크루즈만이 접근이 가능하다.

알래스카는 미국 50개 주 중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유일한 주 알래스카, 호수가 3백만 개나 되고 화산이 29개나 있다. 미국에서 가장 넓은 주이고 미국 본토의 5분의 1 크기, 텍사스의 2배, 로드아일랜드

드주의 425배나 된다. 인구는 약 62만명이며 인구비례 대비 곰의 숫자가 사람 21명당 곰 한마리 꼴이다. 관광지 중의 관광지로 꼽히는 이곳의 쪽빛바다와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 빙하는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보통 알래스카는 일년 내내 눈과 얼음에 뒤덮인 겨울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짧지만 꽃이 피는 봄이 있고 단풍 드는 가을이 있다. 알래스카의 여름은 7월과 8월이다. 평균기온이 화씨 60도 전후로 일조시간이 길어 낮과 밤이 없는 백야현상이 이어진다. 이때는 산에는 수목이 우거지고 초원에는 가지각색의 들꽃이 만발하며 빙하 녹은 물이 폭포가 되어 떨어진다. 만년설에 덮인 산은 햇살에 반짝이고 부서져 내린 거대한 빙하조각은 광음을 일으키며 바다로 빨려 든다.

알래스카는 알류트어인 알리에스카(Alyeska)에서 유래했는데 "거대한 땅"을 의미한다.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때문지 않은 거대한 자연을 만끽하려면 네 가지를 꼭 해야 한다.

▷ 빙하구경

알래스카의 빙하는 산에서 시작해 육지와 호수를 거쳐 바다에 이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새를 형성한다. 이 중 멘덴홀 빙하(Mendenhall Glacier)는 가장 인기가 많다. 빙하 전체를 하늘에서 조망할 수 있는 헬기 투어와 멘덴홀 빙하 주변을 걸으며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구름이 끼어있다면 행운이다. 에머랄드 빛 빙하와 구름이 이루는 환상적인 풍경은 잊혀지지 않을 감흥을 준다.

바로 눈앞에서 빙하가 떨어지는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허바드 빙하(Hubbard Glacier)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의 백미이다. 보통 빙하가 하루에 1야드를 움직이지만 허바드 빙하는 60야드 가까이 이동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빙산을 쫓개내게 된다. 바다로 곤두박질 치는 이 얼음덩이는 10층 건물 크기에 이르고 빙산이 쫓개질 때 나는 광음은 대자연의 위대함에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다.

▷ 설산조망

알래스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시려

면 경비행기나 헬기를 타고 관광하는게 좋다. 크루즈에는 주요 기항지에서 즐길 수 있는 선택관광 상품을 마련돼 있다. 물론 개별 여행도 가능하지만 크루즈 재탑승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만일 크루즈를 놓치게 되면 다음 기항지까지 개별적으로 이동해야 하고 비용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미국 최대 국립공원인 랭글-세인트 엘리어스 국립공원은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경비행기를 타고 남동 알래스카 지방의 좁은 협만인 인사이드 패시지(Inside Passage)를 따라 비행하다 보면 울창한 산림, 섬, 빙하, 야생동물을 볼 수 있다. 산악인 마을인 탈키트나에서 시작되는 경비행기는 만년설 빙벽으로 이뤄진 북미 최고봉 맥킨리 산(20,734피트)을 눈으로 정복할 수 있게 해준다.

▷ 야생동물 관찰

빙하에서 쫓겨져 나온 얼음덩이에 바다코끼리 떼가 휴식을 취하고, 대머리 독수리 수백 마리는 무리지어 날아다닌다. 무스는 교통체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산양은 가파른 절벽 길을 씀 없이 뛰어다닌다.

기항지 육상을 이용해 경비행기로 야생동물을 멀찍히 바라보거나 야생동물 보호지역이나 국립공원 등지를 방문해 자동차로 이동하며 좀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 게다가 수족관, 동물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더 긴밀한 관찰을 원한다면 가불만 하다.

▷ 알래스카 원주민 문화 체험

알래스카 인구의 약 15%가 에스키모 등 알래스카 원주민이다. 이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 하는 것은 알래스카 크루즈의 또 다른 묘미이다. 앵커리지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알래스카 원주민 유물센터(Alaska Native Heritage Center),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 배로우(Barrow)의 이누피악 유물센터, '독수리의 펼친 날개'란 의미의 지명을 가진 케치칸(Ketchikan)의 토렘 유물센터 등을 찾으시면 된다. 개설매 타기는 원주민 문화 체험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미도 얻게 해준다.

(기사제공: **US이쭈투어**)



알래스카는 3천여 강과 호수가 하안 장막 안에 숨을 쉬고 있는 눈의 나라다.

업그레이드! 새로운 서해투어 4일이 새로워졌습니다!
여수일정 전격포함, 여수엑스포 박람회를 위해 건립된 **여수 히든베이 특급호텔 숙박**,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조망하는 **낭만을 즐기세요**. **아주투어만이 오션뷰를 보장합니다**. 서해의 멋진 밤바다와 석양을 누리세요. ▶ **매주 금요일 출발** ▶ \$399+항공료



KOREA TOURISM ORGANIZATION
한국관광공사



Korea Be Inspired

담양 죽녹원 멋자랑! 맛자랑!

대나무축제

4일 \$399

출발 ▶ 5/3(금), 5/8(수)

산뜻한 대나무향이 어우러진 남도의 맛과향 담양에서 올 봄의 한국을 느껴보세요. 오감만족! 아주투어가 당신의 모국관광을 풍요롭게 해드립니다.

New 서해투어 4일 포함

죽녹원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관방제림**

천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메타세콰이어길**

보성 다향제 멋자랑! 맛자랑!

녹차축제

4일 \$399

출발 ▶ 5/14(화), 5/19(일)

녹차의 수도 보성에서 열리는 다향제! 그윽한 녹차향에 취하고 여리고 여린 녹차의 어린잎의 싱그러움에도 취해보세요.

New 서해투어 4일 포함

녹차밭

봄철 첫잎, 새싹의 향연 **녹차밭**

아주의 특별한 체험투어 **차잎따기**

철쭉꽃이 온산을 뒤덮은 장관 **일림산철쭉제**

관광외길 30년! 아주관광이 새로운 30년을 아주투어로 시작합니다!

US이쭈투어

213-388-4000

833 S. Western Ave #35-A, L.A., CA 90005

LIFE IS TRAVEL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팔리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완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방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투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로템

웹디자인: 쇼핑몰, e-commerce, cms 웹사이트, 온라인 배너, 웹사이트 유지 및 보수

그래픽디자인: 명함, 브로셔, 신문/잡지 광고, 배너



Rodem N. Hwang
Designer

213-587-3498
kprodemh@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 후 배달

봄맞이 세일 목회자님 위한 세일 20%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한국아트패션 회장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라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 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975 S.Vermont Ave.#102, Los Angeles, CA 90006

T.213.386.5858 / C.213.663.9556

‘장애인의 날’ 맞아 생각해 보는, 지적 장애인들의 ‘구원과 성례’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는 것일까?

“지적 장애인에게 성례를 베풀지 않는 교회 목회자님들께 호소합니다. 제발 한 번만 지적 장애아를 둔 부모의 처지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성적이 되지 않는 아이를 특별전형으로 합격시켜 달라고 떼쓰는 느낌이 드니까요.”

지난 1997년 ‘다운중후군’을 갖고 태어난 늦둥이 딸 ‘JOY(조은)’을 키우다 아예 딸의 이름을 딴 ‘조이장애선교센터’를 세워 발달장애인과 삶을 나누고 있는 김홍덕 목사는, <교회여! 지적 장애인에게 성례를 베풀라(대장간)>를 통해 묻는다. “어떤 성경적 근거로 지적 장애인에게 성례(세례와 성찬)를 거부하십니까?” 깊은 생각 없이, ‘관행이니까’ 그렇게 해 오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지적 장애인들에게 성례를 베푸는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그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성례를 개방하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유아세례를 베풀면서도 지적 장애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건 자신들 신학에도 충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적 장애아를 둔 부모들에게 이들

의 ‘구원과 세례’ 문제는 마치 자살자 유가족들에게 ‘자살자의 구원 여부’처럼 민감한 부분이다. 저자인 김 목사는 물론 “성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적 장애아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 모로 착잡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지적 장애아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는 데는 여전히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적 장애아를 둔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을 때는 정작 따로 있습니다. 성례 주일입니다.”

어느 장애아의 이야기란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례를 신청했습니다. 세례 문답에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미리 나눠 준 세례 문답 문제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데도 이렇게 입시가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아이, 하루종일 찬송을 흥얼거리는 아이, 그런데도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떡을 받을 수 없는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마치 아이를 땅에 떨어놓고 혼자 천국에 올라가려 애쓰는 못된 부모가 된 심정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슈도 지적 장애인 가족들에게 가시 같은 질문이라고도 토로한다. 구원 문제를 논하는 기존의 신학적 질

문이 하나님을 아는 ‘지적 능력 유무’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7조)을 언급하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여받았고, 인간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고, 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적 장애인도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예정 안에 있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뤄지므로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모두 구원의 초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때 소위 ‘소외된 자’들을 품으셨으므로 당연히 지적 장애인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결론이다.

‘지적 장애인이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대라’는 이들에게는, “참어할 수 없는 근거를 먼저 대라”고 일갈한다. 세례가 구원의 ‘인증서’나 ‘면죄부’도 아닌 입장에서 보면, 세례를 배제할 ‘결정적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차라리 요즘 소위 예상 문제를 배부하고 외워 맞추는 식의 세례 문답이 오히려 신앙고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방법이 없는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는가?” 신앙고백 측정 방법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적극 사용할 필요도 있다고 저자는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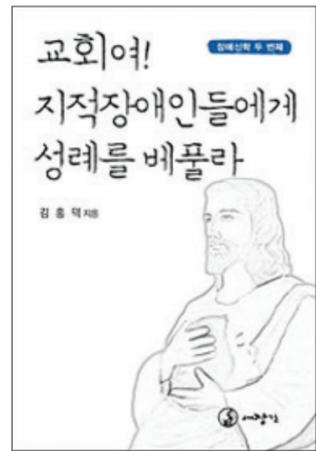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구약 율법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일부 ‘제약’ 때문에, 한때 교회는 ‘장애’를 하나님의 ‘형벌’ 또는 ‘부정한 사람이 가지는 것’으로 보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들도 교회에서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 ‘장애신학’이 따로 필요치 않게 되는 그날, 신학도

‘장애’가 없어질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한 일도 없을 뿐더러, 특별히 장애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생각과 규율을 정하신 적도 없기 때문이다.

장애아가 태어나리라는 진단에도, “장애를 갖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기쁨(JOY)’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저자는 복지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장애신학’과 ‘장애선교’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딸과 함께한 김홍덕 목사의 모습.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다.



교회여! 지적 장애인에게 성례를 베풀라 김홍덕 | 대장간 | 160쪽

Biz

디지털 시대, 따스함을 나누는 ‘저렴하고 품질좋은’ 인터넷 전화 iTalkBB

인터넷도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변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환경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한국의 가족, 친구들의 근황도 바로 옆에 있는 듯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버튼하나로 세계가 하나 되는 시대에도, 가까운 사람들의 따듯한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듣고 나눌 수 있는 것 만큼 반갑고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이다.

과거, 기지국을 기반으로 했던 통신 서비스가, 이제 우리가 살고있는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 전화’로 발

전하여, 비록 멀리 있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가깝게 이어주며, 희노에 락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리고, 과거, 단지 저렴한만을 무기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인터넷 전화’는, 지난 수년간 음성 통화기술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저렴하고 품질좋은 전화’와 동의어가 되기에 충분하다.

현재 북미지역에서 ‘저렴하고 우수한 통화품질’로, 한인 맞춤형 통신 서비스를 주도하고있는 인터넷 전화 ‘아이토크비비’는 이러한 음성통신 기술의 발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많은 동종업체의 흥망성쇠

와 국내외 경기 침체속에서도, 지속적인 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미주 한인들을 위한 인터넷 전화업체로서 굳건한 자리를 다져왔다.

아이토크비비는 인터넷 전화의 대표적 장점인 ‘경제성’을 대변하듯, 미국내 최저가인 월\$4.99 짜리 수신전화 ‘패밀리 알뜰플랜’부터, 월 \$34.99짜리 한국포함 27개국(유무선) 국제전화까지 무제한인 ‘글로벌 플러스 플랜’ 그리고 사업자와 ‘비즈니스 플랜’ 등, 개인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플랜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무료 부가 서비스(Caller ID, Voice

Mail, Call Forwarding)뿐만 아니라, 각 플랜별로 추가 제공되는 한국전용 070번호와 무료서비스 ‘아이토크글로벌’(휴대폰을 통한 국제전화 기능)은 기존의 전화카드보다 편리한 국제통화용 서비스로 사용자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한인고객의 편의를 위해 365일 운영되는 한국어 고객센터 센터(오전9:00~ 새벽1:30, EST, 오전6:00~ 오후10:30, PST)는, 아이토크비비의 큰 장점 중 하나로서, ‘한인을 위한 전화 서비스’로서의 탄탄한 입지에 큰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현재, 아이토크비비는 (4월 30일

까지) 신규 계약 가입자에 한해 첫 2달을 무료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이미 입증된 인터넷 전화의 경제성과 우수성을, ‘아이토크비비’를 통해 경험해 보길 바란다.

아이토크비비는 ‘30일 환불 보장 제도’가 있으므로 가입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365일 한국어 고객센터 센터: 1.800.872.2902 (오전9:00~ 새벽1:30 EST, 오전6:00~ 밤10:30 PST.)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첫 2개월 무료!

AT&T, Verizon 집전화 사용자 여러분! 비싼 요금으로 계속 쓰시겠습니까?

미국 무제한 플랜 로컬, 장거리 무제한 통화 국제전화 매월 60분 무료

~~\$9.99/월~~ **\$0.00/월** 첫 2개월간, 이후 \$9.99

마감 임박

행사기간: 2013년 4월 30일 까지

미국 최저가 **패밀리 알뜰 플랜**

~~\$4.99/월~~ **\$0.00/월**

- 수신 무제한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첫 2개월간, 이후 \$4.99
- 기존 전화번호 유지 가능

글로벌 플랜

~~\$24.99/월~~ **\$0.00/월**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첫 2개월간, 이후 \$24.99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화 가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월~~ **\$0.00/월**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첫 2개월간, 이후 \$34.99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한국 휴대전화까지 무제한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www.Korea.iTalkBB.com** LA 직영점 (코리안타운 갤러리아 304호) 213.559.7557 | 1.800.872.2902

지금 가입하고 친구추천 하면 **1개월 무료** 고객센터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분(PST)

www.phhyundai.com

스마트하게
현대차를
구입하려면,



SUPER STORE
푸엔테힐스현대

고객의 1등 사랑, 1등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푸엔테힐스 현대가 도와 드립니다.
친절한 상담과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013 ACCENT GS M/T



\$69

+TAX (STK #092129)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5,985

PH HYUNDAI D/C \$1,344 MILITARY REBATE \$500
COMP.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90

+TAX (STK #701499)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360

PH HYUNDAI D/C \$2,300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EQUUS SIGNATURE



\$473

+TAX (STK #065945) Demo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4,999

MSRP \$60,170

PH HYUNDAI D/C \$8,282 COMP. REBATE \$1,000
LEASE CASH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Sales
스티브장
626.513.4005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Sales
브라이언 리
858.337.3993